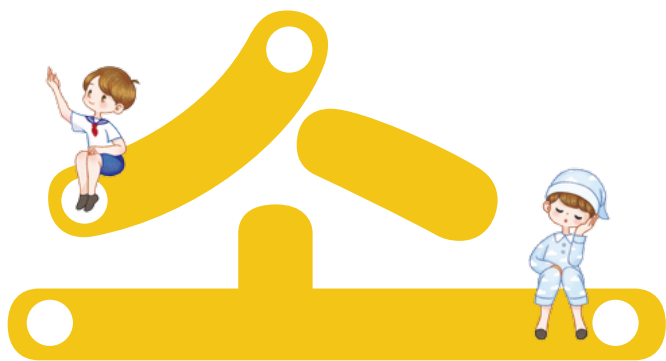




중도중복장애학생 의사소통

손담 활용 연수 자료집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중도중복장애학생 의사소통 손담 활용 연수 자료집



CONTENTS

I. 몸짓상징 손담 개관

1. 손담의 필요성 및 개념	5
2. 손담의 개발	7
3. 손담의 어휘 범주	10
4. 손담의 기대효과	11

II. 손담을 활용한 의사소통 지도

1. 공통 유의 사항	12
2. 손담 지도의 실제	13

III. 손담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1. 각 교수·학습자료별 활용 안내	18
2. 웹 사이트 활용 안내	30

IV. 시각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손담 활용 방법

1.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의사소통과 몸짓상징 손담	33
2.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손담 지도	36
3. 손담을 활용한 의사소통 지도 사례	42
4. 새로운 시작 앞에서	48

V. 중도지적·자폐성장장애학생을 위한 손담 활용 방법

1. 중도지적·자폐성장장애학생의 의사소통과 몸짓상징 손담	49
2. 중도지적·자폐성장장애학생의 손담 지도	51
3. 손담을 활용한 의사소통 지도 사례	54
4. 새로운 시작 앞에서	69

VI. 지체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손담 활용 방법

1. 지체중복장애학생의 의사소통과 몸짓상징 손담	70
2. 지체중복장애학생의 손담 지도	72
3. 손담을 활용한 의사소통 지도 사례	80
4. 새로운 시작 앞에서	83

VII. 청각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손담 활용 방법

1. 청각중복장애학생의 의사소통과 몸짓상징 손담	86
2. 청각중복장애학생의 손담 지도	88
3. 손담을 활용한 의사소통 지도 사례	93
4. 새로운 시작 앞에서	98

참고 문헌

I. 몸짓상징 손담 개관

1. 손담의 필요성 및 개념

1) 손담의 필요성

교육 현장에서 중도중복장애를 가진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제한된 의사소통으로 인한 학습 및 생활 지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그림상징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보완대체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으나, 인지, 운동, 감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처럼 중도중복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의 기회를 보장받기 어려운 학생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몸짓 표현과 한국수어를 기반으로 하여 손담이 개발되었다.

2) 손담의 개념

손담은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수어나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의사소통 교육을 위해 일련의 몸짓을 활용하여 개발된 상징체계로, 국립특수교육원(2017)의 ‘중도중복장애학생 의사소통 몸짓언어 개발 기초 연구’에서 개발된 약 200개의 몸짓상징 기초 어휘 목록에 기반한 272개의 어휘에 대한 204개의 몸짓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손담은 구어 발달이 제한되거나 그림상징을 이용한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하기 어려운,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중도중복장애(시각중복장애, 중도지적·자폐성장애, 지체중복장애, 청각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다.

3) 외국의 몸짓상징 사례

국외에서도 다양한 의사소통의 요구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각 나라의 수어를 기반으로 몸짓상징이 개발되어 중도중복장애학생 지도뿐 아니라 아직 구어가 발달되기 전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 언어교육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가. 독일

독일은 1970년경부터 지적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손 동작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의 대표적인 손 동작어인 구크(GuK)는 언어발달과 구어 사용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학생의 의사소통을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독일 수어를 토대로 개발된 쉬운 손 표현 의사소통체계이다. 의미 전달에 꼭 필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구어와 그림 카드를 함께 사용하여 구어를 쉽게 이해하고 의미를 표현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다운증후군 등 지적장애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정지, 기다리다



안녕



미안해



선생님

※출처: Deutsches Down-Syndrom InfoCenter, (7. Aufl) (2000)

나. 영국

• 마카톤(Makaton)

마카톤은 1972년에 영국 수어(British Sign Language, BSL)를 쉽게 만들어 지적장애가 있는 청각중복장애인을 가르친 데서 비롯되었다. 대화 중에 정보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하여 핵심단어를 중심으로 손 표현과 상징을 함께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다.



정지, 기다리다



아프다



다음



집

※출처: Singing Hands UK(2013, 12, 22.). Singing Hands: Three little monkeys - with Makaton Sign Language.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mZBZ8J1R_yU&feature=youtu.be

• 시그널롱 (Signalong)

시그널롱은 영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몸짓상징 체계로, 구어를 활용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사용하는 대안적인 손 표현 방식으로 핵심어휘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1991년에 개발되었다.



화장실



선생님



집



주다(주세요)

※출처: The Signalong Group(2018). Resources: The Basic Vocabulary set, also available as a dictionary, is a collection of over 1,600 signs of everyday nouns, verbs and concepts. Retrieved from <http://www.signalong.org.uk>

다. 미국

• INSITE-Model(Adam, 2000)

초기 단계의 몸짓도 어렵거나 움직이지 못하여 의사소통판을 사용할 수 없는 어린 감각 손상 중복장애아동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쉬운 몸짓 의사소통 방법으로 개발된 부모 중심 감각 활용 중재 가정 훈련 교육 프로그램이다. 자녀가 의도 없이 나타내는 울음이나 몸짓 등에 부모가 반응하여 의사소통의 기회로 만들어 가는 단계로 시작하여 자녀의 감각 운동 반응 지원, 자연 발생적인 손 표현 사용, 관습적인 손 표현 사용하기의 단계로 발달시킨다.

• 베이비 사인(Baby Sign Language)

영아들이 사용하는 몸짓, 손짓, 표정, 울음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언어적 표현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구어가 완성 될 때까지 미국 수어에 기반한 몸짓 표현을 통해 영아와 양육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자 개발되었다.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흥미를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동작을 베이비 사인으로 일관되게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



그만하다



아프다



배고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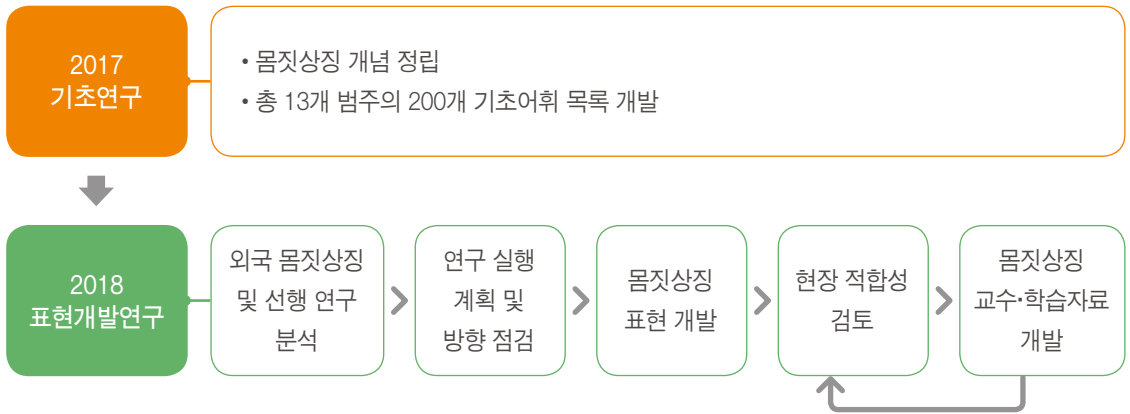
화장실

※출처: Baby Sign Language (2018). Children with Special Needs Using Sign Language. Retrieved from <http://www.babies-and-sign-language.com>.

2. 손담의 개발

1) 손담 개발 과정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 개발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손담 기초 연구에서는 몸짓상징 개념 정립과 비구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분석을 통해 총 13개 범주에 해당하는 200개의 기초어휘 목록을 개발하였다. 이 기초어휘목록에 준하여 시각중복장애, 중도지적·자폐성장애, 지체중복장애, 청각중복장애영역의 총 9명의 현장교사들과 함께 몸짓상징 표현을 개발하였고, 전문가와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성 검토 및 수정 과정을 거쳐 총 272개의 어휘에 대한 204개 표현을 최종 개발하였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손담 개발 절차

2) 손담 개발 원리 및 구성

손담은 다음과 같은 원리에 따라 개발되었다.

- ① 손담은 모든 연령대의 중도중복장애인을 사용 대상으로 고려하여 쉽고 단순한 손 표현을 기본으로 개발하였다. 손담을 대상 학생이 사용하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 중 하나로 보고, 생각, 의도, 감정이 드러나도록 얼굴 표정, 목소리나 터치단서를 함께 사용한다([그림 1-2] 참조).



[그림 1-2] 얼굴 표정 활용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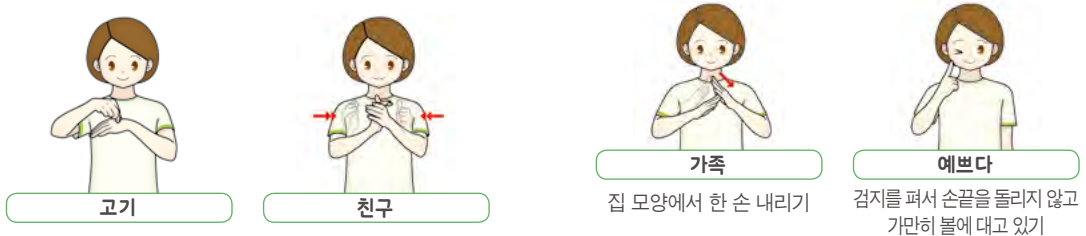
- ② 뻗기, 당기기, 밀기, 가리키기, 상대방 쳐다보기 등 기존에 학생이 사용하던 관심을 끌기 위한 움직임도 함께 사용한다.

③ 문화적으로 정의되거나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보편적인 표현을 포함하였다.



[그림 1-3] 보편적인 표현을 사용한 손담의 예

④ 한국수어와 해외 몸짓상징 표현을 참고하되,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거나 표현이 쉬운 경우에는 그대로 차용하였고, 표현이 어려운 한국수어는 수정하였다.



[그림 1-4] 쉬운 수어 표현을 차용한 예

[그림 1-5] 한국수어 수정의 예

⑤ 학생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기초로 손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표현을 개발하였다.



[그림 1-6] 새로 개발한 표현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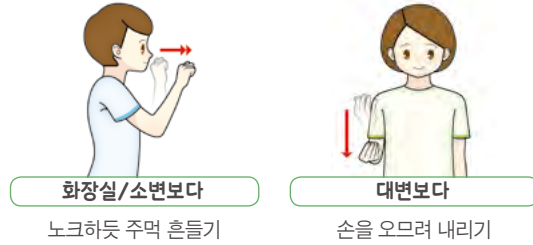
⑥ 가급적 어휘 개수를 줄이고자 하나의 표현으로 통일할 수 있는 어휘들은 통일하였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한 가지 표현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그림 1-7] 다양한 어휘를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낸 예

[그림 1-8] 하나의 표현으로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 예

- ⑦ 사용 대상의 연령 범위를 고려하여 유아부터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혐오적인 표현이나 연령에 부적절한 표현은 지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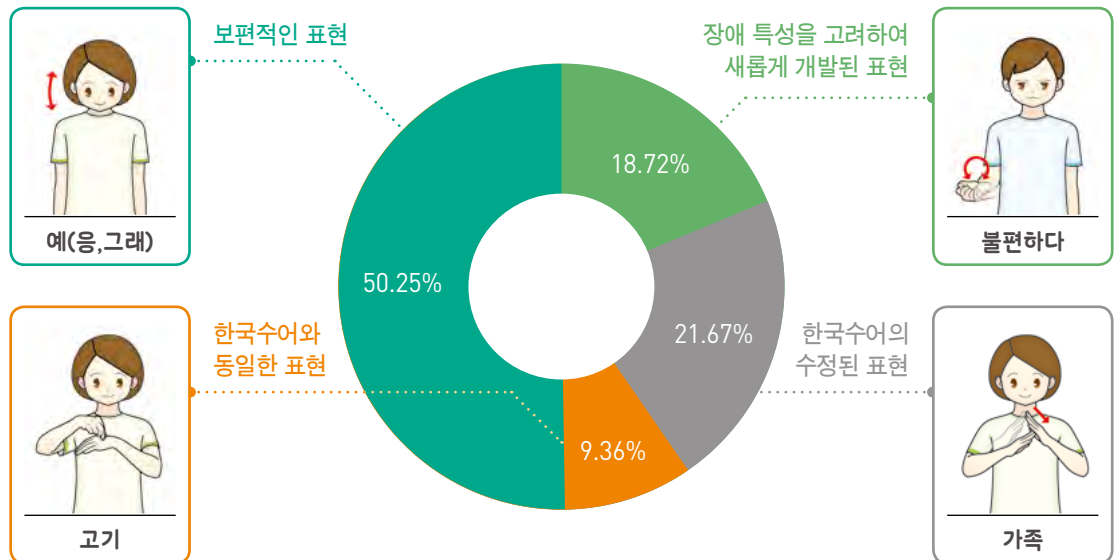
[그림 1-9] 연령 적절성을 고려한 예

- ⑧ 장애 유형별 다양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 및 확장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시각중복 및 지체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적 표현 방안을 부가적으로 제시했으며, 장애영역별 손담 활용 가이드북에 좀 더 많은 대안적인 표현 방법을 수록하였다.



[그림 1-10] 대안적인 표현의 예

위와 같은 개발 원리가 적용된 손담 표현의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1] 손담 표현 구성 비율

3. 손담의 어휘 범주

손담은 13개 범주의 272개의 어휘에 대한 204개의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담의 어휘 범주별 목록은 <표 1-1>과 같다.

번	범주	어휘	어휘(개)	표현(개)
1	사람 및 호칭	나(저요, 제가 할래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오빠/형/언니/누나, 동생, 가족, 아기, 선생님, 친구, 의사, 여자, 남자	17	14
2	기분 및 감정	하고 싶다, 좋다/잘하다, 싫다, 예쁘다, 사랑하다, 행복하다, 울다/슬프다, 화나다/기분 나쁘다, 무섭다, 괜찮다, 쉽다, 어렵다, 심심하다/지루하다	17	13
3	건강 및 상태	약, 아프다, 다치다, 불편하다, 피곤하다/쉬다, 자다/졸리다/눕다, 뜨겁다, 덥다, 차갑다/춥다, 가렵다, 조심하다, 휠체어/유모차, 안경, 확대경, 보청기/인공와우, 미세먼지/마스크/입을 막다	24	16
4	음식 및 식사	먹다/식사/간식, 밥, 마시다/목마르다/물, 밥, 국, 우유, 빵, 고기, 생선, 김치/맵다, 과일/사과, 과자, 아이스크림, 숟가락, 젓가락, 포크, 그릇, 컵, 빨대, 냉장고	26	20
5	위생 및 의복	화장실/소변보다, 칫솔/양치질하다, 휴지, 얼굴, 세수하다, 비누/씻다, 칫솔/양치질하다, 치약, 목욕하다, 머리 감다, 머리 빗다, 기저귀/생리대, 젖다, 깨끗하다, 청소하다, 수건/수건으로 닦다, 걸레/걸레로 닦다, 린넨, 린넨을 입다, 린넨을 벗다/가방을 벗다, 아래옷을 입다/바지/치마/팬티, 아래옷을 벗다, 모자/모자를 쓰다, 신발, (신발, 양말을) 신다, (신발, 양말을) 벗다, 끼다, 빼다	39	28
6	사회성 어휘	예(응, 그래), 아니요, 안녕(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다, 미안하다, 안 돼(*강한 금지의 의미), 저기요(부르는 말), 축하하다, 돕다, 함께/함께하다, 다 함께, 돈/사다, 농담(농담이에요)/장난(장난이에요), 의사소통기기(태블릿PC)	17	14
7	행동 및 정도	주다, 주세요, 받다, 다른 것 주세요, 좀 더, 있다, 없다, 같다, 다르다, 그만하다(멈추다), 잠깐만(잠깐 기다려, 이따가)/다음에, 기다리다, 시작하다, 끝나다/다 했다, 정리하다/준비하다, 다시, 보다, 듣다(노래, 음악을 듣다), 말하다, 조용히 하다(조용히), 냄새 맡다, 생각하다, 알다, 모르다, 앓다/의자, 서다(일어서다)/스탠더(기립훈련기), 걷다, 가다, 오다, 켜다/빛/해, 끄다, 문을 열다, 문을 닫다, 창문을 열다, 창문을 닫다, (차에) 타다, (차에서) 내리다, 만들다, 넣다/담다, 꺼내다, 안다(안아주다), 나누다(나눠주다), 던지다, 때리다/두드리다(치다), 맞다(*때리다의 반대말), 크다/넓다, 작다/적다(조금), 빠르다/빨리, 느리다/천천히	61	49
8	여가 및 놀이	놀다, 노래/노래하다/음악, 춤/춤추다, 수영하다, 텔레비전/텔레비전을 보다, 휴대전화, 컴퓨터/컴퓨터를 하다,	12	7

번	범주	어휘	어휘(개)	표현(개)
9	장소 및 위치	집, 학교, 교실, 병원, 부엌(주방)/식당, 문, 창문,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자동차, 버스, 기차/지하철(전철), 위/올라가다, 아래/내려가다, 안(안으로), 바깥(밖으로), 왼쪽, 오른쪽	23	19
10	시간 및 때	낮/아침, 밤, 지금/오늘, 내일, 어제, 생일/생일 파티, 휴일	10	7
11	자연 및 동식물	비(비가 오다), 눈(눈이 오다), 달(달이 뜨다), 꽃, 나무, 산, 바다, 하늘, 불	9	9
12	학습 및 진로	가방/가방을 메다, 책/책을 펴다, 연필/글씨를 쓰다, 점필/점자를 찍다, 사진(사진을 찍다)/그림(그림을 그리다),	10	5
13	기타	이름,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 왜	7	3
	합계		272	204

〈표 1-1〉 손담 어휘 범주

4. 손담의 기대효과

손담을 활용함으로써 학생의 의사소통 발달, 부모의 양육 및 교사의 교육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1)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발달 촉진

손담은 손을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므로 인지적 요구가 도구를 사용할 때보다 적고, 직관적인 표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아도 쉽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약 200여개의 공유된 몸짓상징을 사용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의도와 내용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대화 상대자와 의사소통함으로써 학생의 기능적인 의사소통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2) 부모의 양육 지원

중도중복장애학생의 부모들이 양육 관련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여러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자녀와의 의사소통 어려움이다.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가 불편한지를 알지 못해 답답하고 속상하거나 도전 행동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다. 손담은 감각, 인지, 운동기능에 제한이 있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어 부모와 자녀 간에 기능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3) 교사의 교육 지원

손담은 어린 아동이나 인지, 운동, 감각기능이 제한적인 중도중복장애학생들도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림상징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보다 자료 준비를 위한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수업 시간이나 일상적인 대화 중 교사가 말과 함께 손담을 사용할 경우, 학생은 교사의 말이나 수업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손담은 장애가 심하여 교육적 요구에 따른 접근방법을 파악하기 어려운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을 위한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업 및 학교생활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Ⅱ. 손담을 활용한 의사소통 지도

1. 공통 유의 사항

1) 학생 이해와 관련하여

- ① 온화한 눈 맞춤과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의사소통을 시작한다.
- ② 세심하고 반복적인 관찰을 통하여 기존에 학생이 사용해 오던 의사 표현 양식(예: 웃기, 쳐다보기, 찡그리기, 발 흔들기, 두드리기 등)과 의사소통 의도 및 기능(예: 부르기, 요구하기, 거부하기 등)을 파악한다.
- ③ 학생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양식이 있는 경우, 이를 발판으로 좀 더 일관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확장시키거나 대체 표현을 지도한다. 일관되게 사용하는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학생의 운동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상황에서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양식이나 표현을 지도한다.
- ④ 학생이 표현하는 의사소통 의도만 있는 경우, 의도를 기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양식을 지도한다. 의사소통 의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이 관심을 보이거나 동기 유발적인 상황에서 상대자가 의도를 표현하는 모습을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시범을 보여준다.
- ⑤ 학생이 보이는 미미한 시도나 반응에도 따뜻한 목소리와 얼굴 표정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칭찬, 격려, 강화한다. 가끔은 다소 과하게 반응함으로써 학생의 이해를 더 잘 도울 수 있다.
- ⑥ 질문에 대답하기 외에도 다양한 기능(예: 요구하기, 거절하기, 인사하기 등)을 가르친다. 인위적인 방법보다 상대자가 자연스럽게 손담을 사용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학생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⑦ 도전 행동을 보이는 경우 강압적으로 지도하기보다는 행동의 기능, 즉 의사소통 의도를 파악하고 기능적인 의사 표현 양식을 지도한다.

2) 손담 지도와 관련하여

- ① 손담과 함께 말, 소리내기, 그 외 다양한 상징(실물, 사진, 그림상징, 제스처, 표정, 눈빛 등)을 함께 사용한다.
- ② 학생의 장애 특성상 손담 표현이 어려운 경우, 장애영역별 확장과 대체 표현을 참고하여 손담의 표현을 수정 및 변형하여 사용한다.
- ③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어휘(표현)부터 지도한다. 처음에는 핵심어휘부터 지도하고, 점차 어휘 수를 늘려간다.
- ④ 다양한 의사소통 상대자들이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다양한 의사소통 양식을 사용하여 일관되게 반복해서 지도한다.

3) 환경 조정과 관련하여

- ① 학생에게 손담을 지도하기 전에 의사소통 상대자, 즉 부모나 주양육자, 교사, 치료사가 먼저 손담을 배우고 익힌다.
- ② 학생이 배우거나 습득한 표현은 학교나 가정뿐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인들과 공유한다.
- ③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고 싶도록 동기유발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2. 손담 지도의 실제

1) 1단계 : 진단

진단 단계에서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현재 어떤 환경과 맥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① 진단자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 학생과 자주 접촉하는 치료사, 복지관 관련자 등 중도중복장애학생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진단할 수 있다.

② 진단 방법

- 공식적인 방법이나 비공식적인 방법 모두를 활용할 수 있다. (<표 2> 참조).

공식적인 방법	비공식적인 방법
- 표준화된 검사: 그림어휘력 검사,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 한국판 맥아더-베이트 의사소통발달평가(K-M-B CDI) 등 - 의사소통 평가 매뉴얼: 파라다이스 보완대체의사소통기초능력평가(PAA), 한국보완대체 의사소통기초능력평가 및 중재프로그램(KAA & KAI)	- 자연스러운 환경 내 관찰, - 양육자 면담 - 질문지

<표 II-1> 손담 의사소통 진단 도구

-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경우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 전형적이지 않고, 의사소통 의도가 적거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검사도구의 사용이 어려울 수 있어 주로 비공식적인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실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과 맥락에서 중도중복장애학생과 대화 상대자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행동을 반복해서 관찰한다.
- 관찰은 직접 관찰이나 비디오 촬영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관찰 시에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보이는 의사소통 방식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③ 진단 내용

- 의사소통 의도 : 중도중복장애학생이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의도가 있는가?

- 의사소통 방식 : 의사소통 의도가 있다면 어떠한 방식(예: 울음, 표정, 제스처, 대상 가리키기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가?
- 의사소통 환경과 대상 : 어떤 환경과 맥락에서 누구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 의사소통 기능 : 어떤 기능(예: 거부하기, 요구하기 등)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 주로 활용하는 신체, 감각기능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어떠한 신체적 기능이나 감각기능을 활용하는가?

④ 손담 활용의 시작점

-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비의도적인 의사소통 행동에서 점차 의도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손담을 활용할 수 있다.
- 의사소통 맥락과 상황에서 학생이 보이는 특별한 표정이나 행동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손담을 통해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의사 표현을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⑤ 참고 자료

- 선호도 조사, 환경 어휘 기록지, 의사소통 기능 및 형태 체크리스트, 학생 개인의 의사소통 표현을 기록한 기록지 등.

2) 2단계 : 계획

계획 단계에서는 중도중복장애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손담이 요구되는 의사소통 환경과 표현 어휘들을 파악하여 손담 활용을 위한 활동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① 진단 포함 요소

- 지도 목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환경, 지도가 필요한 장소와 구체적인 활동, 손담을 활용할 어휘 목록, 활용 방법 및 자료, 지도할 사람 및 대화 상대자, 지도 시간 및 횟수, 평가 방법 등.

② 어휘 선정

어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사용 빈도가 높고 활용 가능성이 높은 어휘
- 학생에게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어휘
- 학생의 표현에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어휘
- 환경 분석을 통한 우선 어휘
- 환경 분석을 통한 어휘 목록 수집: 학생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와 영역별로 필요한 어휘를 정리한 후, 우선적으로 필요한 어휘를 선정한다.

장소	활동	의사소통에 필요한 어휘	우선 필요 어휘	장소별 최우선 필요 어휘	학생의 최우선 필요 어휘
가정	식생활	배고프다, 먹고 싶다. 목마르다, 물, 밥, 과자, 빵, 더 주세요, 배부르다, 숟가락, 젓가락, 뜨겁다, 차갑다	배고프다, 먹고 싶다, 목마르다	화장실, 소변, 대변, 씻다, 아프다, 조심하다	화장실, 안녕하세요/안녕히 계세요, 도와주세요
	의생활	속옷, 바지, 상의, 양말, 입다, 벗다, 단추 끼우다, 단추 풀다, 지퍼 올리다, 지퍼 내리다	속옷, 바지, 상의, 입다, 벗다		
	위생생활	화장실, 소변, 대변, 휴지, 씻다, 비누, 수건, 물 내리다, 치약, 칫솔	화장실, 소변, 대변, 씻다		
	건강생활	아프다, 병원, 약, 주사, 열이 나다, 넘어지다, 피가 나다, 조심하다	아프다, 조심하다, 약		
	여가생활	컴퓨터, 텔레비전, 수영하다, 게임, 마우스, 음악, 노래, 영화, 운동	텔레비전, 컴퓨터, 수영하다, 음악		
학교	담임 시간	안녕하세요/안녕히 계세요, 알림장, 실내화, 가방, 사물함, 준비물, 날씨, 기다리다, 집에 가다, 좋다, 싫다, 하고 싶다	안녕하세요/안녕히 계세요, 가방	안녕하세요/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친구, 도와주세요, 화장실	
	교과 수업	선생님, 친구, 책, 교과서, 연필, 교실, 시간표, 운동장, 체육복, 체육관, 음악실, 미술실, 그만 하다, 도와주세요, 쉬고 싶다	선생님, 친구, 도와주세요		
	식사 시간	식판, 컵, 물, 밥, 반찬, 숟가락, 젓가락, 더 주세요, 그만 먹다. 고맙습니다. 맛있다, 뜨겁다, 차갑다	더 주세요, 그만 먹다		
	쉬는 시간	화장실, 소변, 대변, 친구, 운동장, 공놀이, 게임, 매점, 간식	화장실, 소변, 대변		

[그림 II-1] 어휘 선정을 위한 환경 분석의 예

※출처: 중도·중복장애학생 의사소통을 위한 몸짓상징 손담 교수학습자료집(2018)

③ 기타 고려 사항

- 학생이 이미 습득하여 활용하던 몸짓이나 다른 표현 방법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 가족, 교사 외 학생과 의사소통하는 주변 사람들도 손담 의사소통에 대해 알고, 이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공유하도록 한다.

사례

철수는 중학교 3학년 지적장애학생입니다. 소변이나 대변이 급해서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에 철수의 어머니와 선생님은 철수가 화장실 가고 싶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보다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도 목표	-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손담으로 표현하기
지도 환경	- 학교
지도 장소	- 교실 및 화장실
지도 시간	- 등학교 직후, 매 3교시 쉬는 시간
지도 교사	- 담임교사
지도하고자 하는 손담 어휘	- 가르칠 어휘 : 화장실(소변보다) - 관련 어휘 : 대변보다, 휴지, 기저귀/생리대, 수건/수건으로 닦다, 비누/씻다 등
지도 방법	- 학생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하는 표정이나 신체적 표현을 하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라고 질문하고, ‘화장실’이라고 표현하도록 함. - 스스로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표현을 못하는 경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에 가도록 지도하고, ‘화장실’을 표현하도록 함. - 화장실에 갈 때마다 반복 적용하여 표현 동작을 익히도록 함. - 소변이 마려운 상황과 소변을 보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 카드를 보여주면서 ‘화장실/소변보다’를 표현하도록 함. 
지도 자료	- 손담 표현 동영상과 교수·학습자료집, 카드, 포스터 등 - ‘화장실/소변보다’와 관련된 도서
평가 방법	- 손담을 활용하여 화장실 가고 싶다고 표현한 횟수
기타	- 담임 선생님이 지도한 내용을 가정과 연계하여, 가정에서도 손담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표 II-2〉 손담 지도계획(안) 예시

3) 3단계 : 지도

계획 단계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토대로 실제 의사소통 환경에서 지도한다.

① 지도 대상

- 학생뿐 아니라 대화 상대자의 역할도 함께 고려하여 학교 환경에서 학생이 만나는 교사와 또래, 교직원, 가정과의 연계를 위하여 보호자와 형제자매에게도 손담에 관한 안내가 필요하다.

② 손 표현 지도

- 손 표현을 가르칠 때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촉각 단서, 청각 단서, 시각 단서 등 학생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활용한다.
- 교사와 학생이 함께 손을 잡고 표현하기, 교사의 시범을 천천히 보면서 동시에 따라 하기, 시범을 본 후에 따라 하기 등 학생의 수행 수준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한다.
- 한 손으로 표현하는 어휘는 학생이 편하게 사용하는 손으로 표현하게 한다.
- 양손으로 표현하는 어휘는 좌우가 바뀌어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므로 좀 더 수월한 방향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 구체적인 형상이 있는 어휘(예, 컵, 해)에 대한 표현은 실물, 그림, 상징을 보여 주면서 학생의 이해를 돕는다.
-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예, 춥다, 불편하다)과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예, 행복하다, 무섭다)은 실제 그런 상태나 감정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지도한다.
- 사람과 호칭에 관련된 표현은 대상이 되는 실제 인물을 직접 가리키거나 사진을 보여 주면서 지도한다.
- 습득한 표현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강화와 촉진 전략을 사용한다.
- 학생이 사용하고 있거나 익힌 표현들은 '의사소통 알림장'이나 '개인 표현 사전' 등을 활용하여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의사소통 알림장



개인 표현 사전

[그림 II-2] 의사소통 알림장과 의사소통 사전의 예

4) 4단계 : 평가

계획 단계에서 세웠던 목표가 지도 단계를 통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계획 단계로 다시 돌아가 중도중복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목표를 다시 세우고 이를 지도한다.

- ① 학생 평가 : 손담을 통한 의사소통 발생 빈도, 상호작용 정도, 의사소통 형태 및 기능, 도전 행동 발생에 미친 영향 등을 평가한다.

② 대화 상대자 평가 : 대화 상대자의 태도, 상대자의 손담 사용 지식 및 능력, 의사소통 전략 활용을 평가한다.

③ 계획 수정 및 재지도 : 평가 결과 계획한 목표를 적절하게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적절한 목표와 지도 방법을 다시 계획, 지도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Ⅲ. 손담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손담의 교육과 학습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되었다. 손담의 모든 어휘에 대한 설명과 지도 시 유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책 형태의 교수·학습자료집, 각 어휘별 삽화와 사진이 양면으로 인쇄된 카드, 손담의 전체 어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포스터, 각각의 손담 어휘에 대한 표현 방법을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손담 표현 동영상,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의 손담 사용 장면과 활용 예시가 담긴 장애영역별 활용 가이드북, 그리고 손담의 개념과 장애영역별 활용 방법을 소개한 연구 동영상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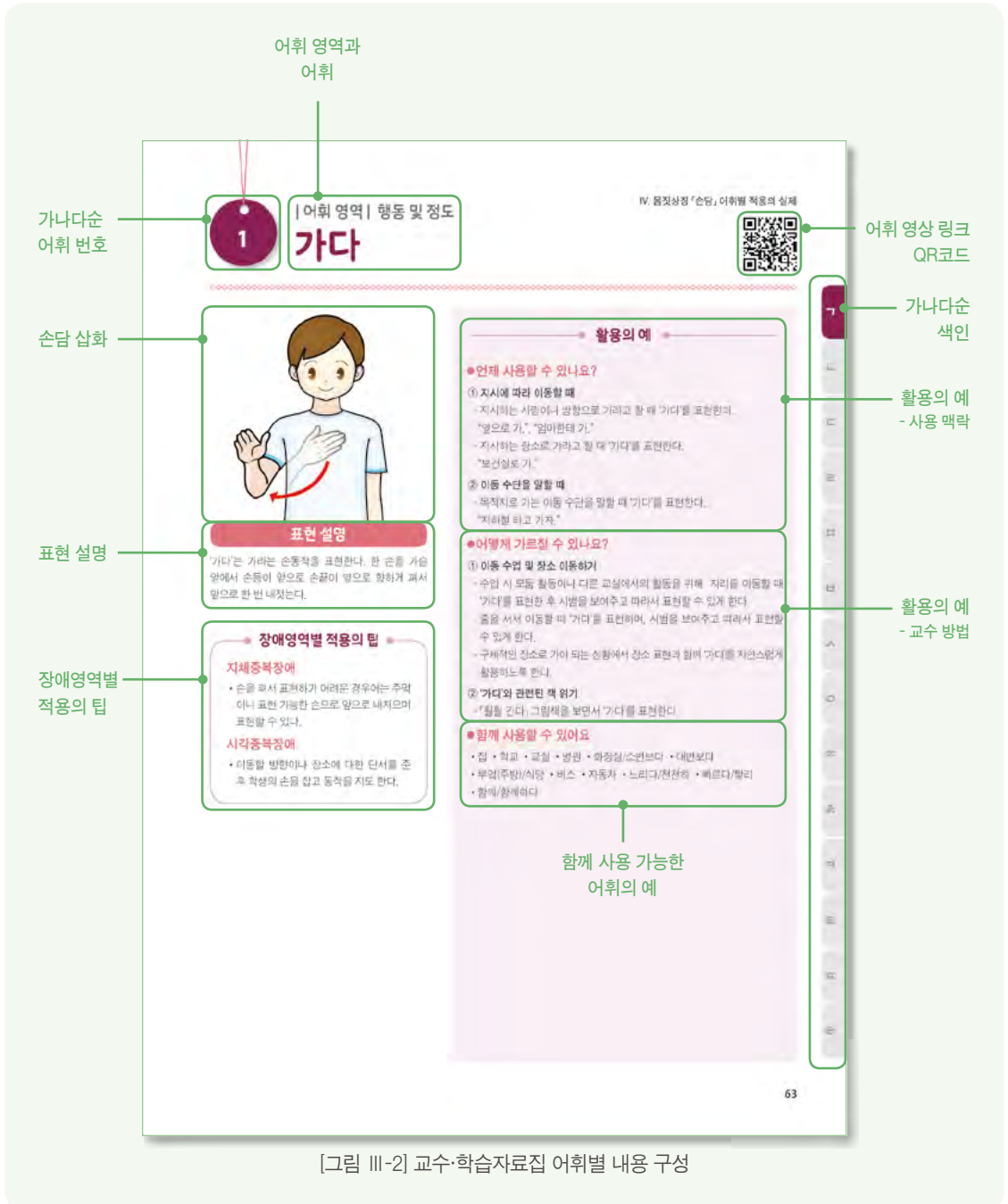
1. 각 교수·학습자료별 활용 안내

1) 교수·학습자료집



[그림 Ⅲ-1] 교수·학습자료집 표지와 구성 내용

손담의 교수·학습자료집에는 손담의 개발 과정, 손담 표현에 대한 설명과 적용 실제, 장애영역별 지도 시의 유의 사항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의 활용 예시, 지도 시에 사용될 수 있는 제재와 자료, 교수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 각 학생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 특성으로 인해 기본 표현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활용 팁과 수정 표현을 수록하였다. 272개 어휘에 따라 개발된 손담 표현 204개 전체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고 있어서, 어휘의 전체 목록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II-1〉 몸짓상징 「손담」 어휘 목록

일련번호	어휘	페이지	일련번호	어휘	페이지
1	가다	63	39	낮	94
2	가렵다	64	40	내려가다	177
3	가방	65	41	(차에서) 내리다	95
4	가방을 메다	65	42	내일	96
5	가방을 벗다	211	43	냄새 맡다	97
6	가족	66	44	냉장고	98
7	간식	127	45	넓다	248
8	같다	67	46	넣다	99
9	걷다	68	47	노래	100
10	걸레	69	48	노래하다	100
11	걸레로 닦다	69	49	놀다	101
12	계단	70	50	농담(농담이에요)	102
13	고기	71	51	누가	103
14	고맙다	72	52	누나	204
15	과일	73	53	눈(눈이 오다)	104
16	과자	74	54	눕다	217
17	관찰다	75	55	느리다	105
18	교실	76	56	다 함께	106
19	국	77	57	다르다	107
20	그릇	78	58	다른 것 주세요	108
21	그림(그림을 그리다)	158	59	다시	109
22	그만하다(멈추다)	79	60	다음에	220
23	글씨를 쓰다	199	61	다치다	110
24	기다리다	80	62	다 했다	88
25	기분 나쁘다	260	63	달(달이 뜨다)	111
26	기저귀	81	64	담다	99
27	기차	82	65	대변보다	112
28	김치	83	66	던지다	113
29	깨끗하다	84	67	답다	114
30	꺼내다	85	68	돈	115
31	꽃	86	69	돕다	116
32	끄다	87	70	동생	117
33	끝나다	88	71	두드리다(치다)	119
34	끼다	89	72	듣다(노래, 음악을 듣다)	118
35	나(저요, 제가 할래요)	90	73	때리다	119
36	나누다(나눠 주다)	91	74	뜨겁다	120
37	나무	92	75	마스크	135
38	남자	93	76	마시다	121

일련번호	어휘	페이지	일련번호	어휘	페이지
77	만들다	122	116	빨대	154
78	말하다	123	117	빨리	153
79	맞다 *때리다의 반대말	124	118	빵	155
80	맵다	83	119	빠다	156
81	머리 감다	125	120	사과	73
82	머리 빗다	126	121	사다	115
83	먹다	127	122	사랑하다	157
84	모르다	128	123	사진(사진을 찍다)	158
85	모자	129	124	산	159
86	모자를 쓰다	129	125	생각하다	160
87	목마르다	121	126	생리대	81
88	목욕하다	130	127	생선	161
89	무섭다	131	128	생일	162
90	무엇을	103	129	생일 파티	162
91	문	132	130	서다(일어서다)	163
92	문을 닫다	133	131	선생님	164
93	문을 열다	134	132	세수하다	165
94	물	121	133	소변보다	261
95	미세 먼지	135	134	수건	166
96	미안하다	136	135	수건으로 닦다	166
97	바깥(밖으로)	137	136	수영하다	167
98	바다	138	137	순가락	168
99	바지	179	138	쉬다	252
100	받다	139	139	쉽다	169
101	밤	140	140	스탠더(기립훈련기)	163
102	밥	141	141	슬프다	208
103	배고프다	142	142	시작하다	170
104	버스	143	143	식당	148
105	(신발, 양말을) 벗다	144	144	식사	127
106	병원	145	145	(신발, 양말을) 신다	171
107	보다	146	146	신발	172
108	보청기	147	147	싫다	173
109	부엌(주방)	148	148	심심하다	174
110	불	149	149	씻다	152
111	불편하다	150	150	아기	175
112	비(비가 오다)	151	151	아니요	176
113	비누	152	152	아래	177
114	빚	247	153	아래옷을 벗다	178
115	빠르다	153	154	아래옷을 입다	179

일련번호	어휘	페이지	일련번호	어휘	페이지
155	아빠	180	194	윗옷을 벗다	211
156	아이스크림	181	195	윗옷을 입다	212
157	아침	94	196	유모차	263
158	아프다	182	197	음악	100
159	안(안으로)	183	198	의사	213
160	안경	184	199	의사소통기기(태블릿PC)	214
161	안녕(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185	200	의자	188
162	안다(안아주다)	186	201	이름	215
163	안 돼 *강한 금지의 의미	187	202	인공와우	147
164	앉다	188	209	입을 막다	135
165	알다	189	204	있다	216
166	약	190	205	자다	217
167	양치질하다	244	206	자동차	218
168	어디서	103	207	작다	219
169	어떻게	103	208	잘하다	229
170	어렵다	191	209	잠깐만(잠깐 기다려, 이따가)	220
171	어제	192	210	장난(장난이예요)	102
172	언니	204	211	저기요(부르는 말)	221
173	언제	103	212	적다(조금)	219
174	얼굴	193	213	점자를 찍다	222
175	엄마	194	214	점필	222
176	없다	195	215	젓가락	223
177	에스컬레이터	196	216	정리하다	224
178	엘리베이터	197	217	젖다	225
179	여자	198	218	조심하다	226
180	연필	199	219	조용히 하다(조용히)	227
181	예(응, 그래)	200	220	줄리다	217
182	예쁘다	201	221	좀 더	228
183	오늘	232	222	좋다	229
184	오다	202	223-1	주다	230
185	오른쪽	203	223-2	주세요	231
186	오빠	204	224	준비하다	224
187	올라가다	209	225	지금	232
188	왜	205	226	지루하다	174
189	왼쪽	206	227	지하철(전철)	82
190	우유	207	228	집	233
191	울다	208	229	차갑다	234
192	위	209	230	창문	235
193	윗옷	210	231	창문을 닫다	236

일련번호	어휘	페이지	일련번호	어휘	페이지
232	창문을 열다	237	253	팬티	179
233	책	238	254	포크	251
234	책을 펴다	238	255	피곤하다	252
235	천천히	105	256	하고 싶다	253
236	청소하다	239	257	하늘	254
237	축하하다	240	258	학교	255
238	춤	241	259	할머니	256
239	춤추다	241	260	할아버지	257
240	춤다	234	261	함께	258
241	치마	179	262	함께하다	258
242	치약	242	263	해	247
243	친구	243	264	행복하다	259
244	칫솔	244	265	형	204
245	컴퓨터	245	266	화나다	260
246	컴퓨터를 하다	245	267	화장실	261
247	컵	246	268	확대경	262
248	켜다	247	269	휠체어	263
249	크다	248	270	휴대전화	264
250	(차에) 타다	249	271	휴일	265
251	텔레비전	250	272	휴지	266
252	텔레비전을 보다	250			

[그림 III-3] 교수·학습자료집 수록 손담 어휘 목록(출처: 손담 교수·학습자료집 20쪽)

2) 손담 카드

손담 카드는 몸짓상징과 표정, 움직임 표현 기호와 같은 동작 설명과 더불어 그림의 이미지와 낱말이 함께 제시되어 몸짓상징을 익히기 용이하게 구성되었다. 손이 작고 손 기능이 분화되지 않은 학습자도 힘들지 않게 집어 들 수 있도록 10.5cm×14.8cm의 크기로 카드를 제작하였으며, 모서리를 둥글게 하여 안전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플래시 카드와 비교하여 종이의 두께를 두껍게 하여 내구성을 강화하였고, 무광 코팅으로 눈부심을 최소화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눈의 피로도를 낮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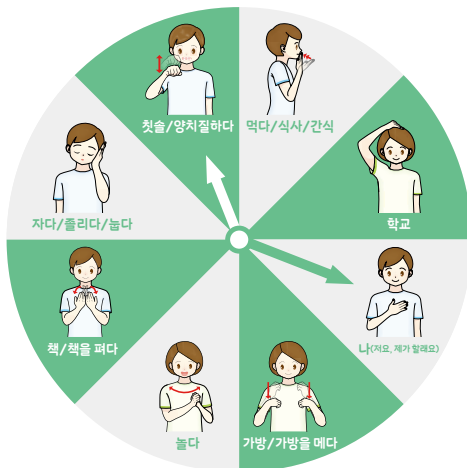


[그림 III-4] 손담 카드의 예 - 앞면과 뒷면

손담 카드의 활용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 어휘의 카드를 링으로 묶어서 반복 학습에 사용할 수 있고, 일상생활 및 학급의 일과 안내, 활동의 순서 안내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카드는 휴대가 간편하게 제작되었으므로 언제 어디에서나 의사소통 표현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III-5] 손담 카드를 활용한 활동 순서 안내 예시 - 대변을 보는 순서



일상생활 일과 안내를 위한 몸짓상징 「손담」카드의 활용 예

학급에서 일과 안내를 위한 몸짓상징 「손담」카드의 활용 예

[그림 III-6] 일상생활과 학급에서의 일과 안내를 위한 손담 카드의 활용 예(출처: 손담 교수·학습자료집 53쪽)

3) 손담 포스터



[그림 III-7] 손담 포스터 세트

손담 포스터는 2장 세트로, 약 A1 사이즈인 52cm×76.5cm로 제작되었다. 포스터는 인물의 스틸컷 이미지로 제작하였고, 각 장에는 손담 어휘를 범주별로 나누어 실었다. 포스터를 통해 손담의 모든 표현을 한눈에 참고할 수 있고, 학습 목표 어휘의 손담 표현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학교와 가정을 비롯하여 몸짓상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의 벽면에 게시하여 학부모, 특수교육지원인력, 교과 담당 교사 등 대화 상대자가 될 수 있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손담의 바른 표현을 확인하며 활용할 수 있다.



교실에서의 몸짓상징 「손담」 포스터 활용



가정에서의 몸짓상징 「손담」 포스터 활용

[그림 III-8] 여러 장소에서의 손담 포스터 활용 예시(출처: 교수·학습자료집 56쪽)

4) 손담 동영상



[그림 III-9] 유튜브 손담 동영상 예시

유튜브에서도 손담 어휘를 검색하여 각 손담 표현별로 게시된 동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각 영상에는 기본 표현과 표현 설명을 탑재하였으며 20초 내로 짧고 쉽게 제작되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효과적인 교수·학습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학생의 학습 어휘에 맞게 재생 목록을 개별적으로 구성하여 반복 학습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기에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어 학습 및 활용이 용이하다.

5) 손담 활용 가이드북

손담 활용 가이드북은 손담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 장면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사례별로 구성한 소책자이다. 각 권은 지체중복장애, 중도지적·자폐성장애, 청각중복장애, 시각중복장애 네 영역으로 나누어 작성되었다. 총론과 자료 안내는 손담과 가이드북과 관련된 공통적인 내용을 담았고, 손담 가이드북 활용 방법은 각 장애영역별 지도 방법과 수정 표현, 활용 예시를 담고 있다.

손담 활용 가이드북에서는 각 영역마다 구체적인 의사소통 장면을 설정하고 손담 사용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공통적인 내용 구성을 취하되, 장애영역별로 고려해야 할 유의 사항을 손담 활용 팁으로 안내하였다. 시각중복장애와 지체중복장애 영역에서는 수정된 손담 표현을 안내하고, 청각중복장애 영역에서는 기존에 수어를 사용하던 학생을 위하여 표현이 다른 수어 표현을 안내하였다.

각 장애영역별 손담 가이드북 활용 방법은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생활로 영역을 나누어 각 생활 영역별로 약 10가지 사례 주제와 내용, 그리고 각 사례에서 활용한 어휘를 정리하였다.

주요 사업		주요 내용
1	주요 사업	주요 내용
2	주요 사업	주요 내용
3	주요 사업	주요 내용
4	주요 사업	주요 내용
5	주요 사업	주요 내용
6	주요 사업	주요 내용
7	주요 사업	주요 내용
8	주요 사업	주요 내용
9	주요 사업	주요 내용
10	주요 사업	주요 내용
11	주요 사업	주요 내용
12	주요 사업	주요 내용
13	주요 사업	주요 내용
14	주요 사업	주요 내용
15	주요 사업	주요 내용
16	주요 사업	주요 내용
17	주요 사업	주요 내용
18	주요 사업	주요 내용
19	주요 사업	주요 내용
20	주요 사업	주요 내용
21	주요 사업	주요 내용
22	주요 사업	주요 내용
23	주요 사업	주요 내용
24	주요 사업	주요 내용
25	주요 사업	주요 내용
26	주요 사업	주요 내용
27	주요 사업	주요 내용
28	주요 사업	주요 내용
29	주요 사업	주요 내용
30	주요 사업	주요 내용
31	주요 사업	주요 내용
32	주요 사업	주요 내용
33	주요 사업	주요 내용
34	주요 사업	주요 내용
35	주요 사업	주요 내용
36	주요 사업	주요 내용
37	주요 사업	주요 내용
38	주요 사업	주요 내용
39	주요 사업	주요 내용
40	주요 사업	주요 내용
41	주요 사업	주요 내용
42	주요 사업	주요 내용
43	주요 사업	주요 내용
44	주요 사업	주요 내용
45	주요 사업	주요 내용
46	주요 사업	주요 내용
47	주요 사업	주요 내용
48	주요 사업	주요 내용
49	주요 사업	주요 내용
50	주요 사업	주요 내용

- 활용 어휘 목록에는 각 사례 주제마다 사용된 모든 손담 어휘를 기록하였고, 그 중 기본어휘를 색을 넣어 표시하였다.

[그림 III-10] 손담 활용 가이드북의 주제 목록 예시

※출처: 시각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손담 활용 가이드북

각 주제별 사례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기상정보 알아보기

81 우리 가족을 소개해요

이 활동은 가족을 주제로 관련된 표현과
어휘, 문법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통해 스스로 이해하여 지능
활동과 학습을 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⑧1 어떻게 할까요?

STEP 1
가족 사진을 보면서
가족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STEP 2
가족의 직업, 나이,
관심사를 소개합니다.



STEP 3
가족의 취미(관심사)
를 소개합니다.





※ 활동 1의 내용과 관련된 81번과 82번 활동은 [활동지](#)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활동 2의 내용과 관련된 83번 활동은 [활동지](#)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활동 3의 내용과 관련된 84번 활동은 [활동지](#)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활동 4의 내용과 관련된 85번 활동은 [활동지](#)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제별로 제목과 사례를 안내하는 글, 관련 삽화를 제시하였다.
- ‘이렇게 말해요’에는 실생활의 대화 내용과 관련 손담 표현을 함께 제시하였다. 특히 시각중복장애 가이드북에서는 QR 코드로 손담 표현을 사용한 대화 장면을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담 사용을 위한 팁을 제시하였다.



- ‘배워볼까요?’에서는 손담 표현 그림을 제시하고 QR코드로 손담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에서는 서로 관련 있는 손담 표현 어휘를 제시하고, 두 개 이상의 어휘를 연결하여 확장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 시각중복, 지체중복장애 영역의 ‘이럴 땐 이렇게 표현해요’에서는 손담 기본 표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수정 표현 사진과 적용 방법을 안내하였다.
-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손담 표현을 적용할 수 있는 맥락을 설명하거나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동화와 동요 등을 소개하였다.

[그림 11-1] 손담 활용 가이드북 사례별 구성 예시

※출처: 시각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손담 활용 가이드북



- 청각중복영역의 ‘한국수어의 적용’에서는 각 사례 주제에서 소개된 손담 어휘와 표현이 다른 수어 표현을 소개하여, 기존에 수어를 사용하던 학생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본 가이드북에 소개된 수어 표현은 국립국어원의 한국수어사전을 참고하였다.

[그림 11-2] 한국수어의 적용 예시

※출처: 청각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손담 활용 가이드북



[그림 III-13] 쉬어가는 페이지 예시

※출처: 청각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손담 활용 가이드북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교수·학습자료를 통해 각 학생의 흥미, 연령, 성별, 장애 유형, 장애 정도, 필요 등을 고려하여 어휘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자료를 재구성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

6) 손담 연수 동영상

손담 활용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대화 상대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손담 활용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였다.

손담 연수 동영상은 손담에 대한 개관(개발 배경, 개념, 손담 표현 설명 등)과 장애영역별(시각중복장애, 중도 지적·자폐성장애, 지체중복장애, 청각중복장애)로 손담을 교육 상황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각 15분 내외의 동영상 5개로 나누어 안내하였다.

2. 웹 사이트 활용 안내

1) 온맘 사이트를 통한 손담 활용

모든 손담 교수·학습자료는 국립특수교육원 온맘 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다. 온맘 사이트 홈 화면에서 우측 중앙의 손담을 클릭하면 카테고리별 어휘와 동영상, 장애영역별 팁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온맘 사이트는 국립특수교육원의 홈 화면에서도 찾아 들어갈 수 있다.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 '온맘'은...

장애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건강, 교육, 관련서비스 등에 대한 부모를 위한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학생이 양육과 문제해결을 위한 양육 지원 가이드북

중도 중목 장애학생 의사소통을 위한 몸짓상징 손담

복지기관 244개소

특수학교 178개소

의료기관 275개소

기타지원 77개소

장애학생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공지사항

중도중복장애학생 의사소통 손담 활용... 2019-10-14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2019-02-07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9-07-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9-07-11

자료실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2019-09-27

에너지박람회 지원제도 안내 2019-09-26

[그림 III-14] 온맘 사이트의 홈 화면



손담 >

자료게시판 >

자료게시판

홈 > 몸짓상징 > 자료게시판

· 분류

· 검색어

총 3 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조회수
공제	자주 묻는 질문	손담관리자	2018-12-21		197
공제	몸짓상징 연구보고서 및 손담 활용세미나 발표 자료	손담관리자	2018-12-05		276
공제	몸짓상징 손담 자료 탑재(교수학습자료집 / 포스터 및 카드세트 / 사진 및 일러스트)	손담관리자	2018-11-29		769

<<
<
1
>
>>



손담 >

자료게시판 >

손담

홈 > 몸짓상징 > 손담

언어선택
원하시는 카테고리
를 클릭하세요.

사람 및 호칭

행동 및 정도

기타

기분 및 감정

여가 및 놀이

건강 및 상태

장소 및 위치

음식 및 식사

시간 및 때

위생 및 의복

자연 및 동식물

사회성 어휘

학습 및 진로

사람 및 호칭 · 남자



▶ 남자

▶ 나(지요, 계가 할려요)

▶ 가족

▶ 동생

▶ 엄마

▶ 여자

▶ 오빠 / 형 / 언니 / 누나

▶ 의사

▶ 선생님

▶ 여기

[그림 III-15] 온맘 사이트의 손담 자료 게시판

두 번째 탭의 의견 게시판에는 교수·학습자료집, 카드세트, 포스터, 사진 및 일러스트 일체를 내려받을 수 있는 게시글이 탑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교사, 학부모, 학생이 손쉽게 손담의 자료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2) 유튜브를 통한 손담 활용법

유튜브 웹 사이트에는 272개의 손담 어휘를 표현하는 204개의 몸짓상징 표현 설명을 탑재한 동영상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다. 각각의 어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자료는 가나다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재생 목록을 개별적으로 구성하여 반복 학습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각 동영상은 짧게 구성되었고, 빠르게 화면이 전환되며,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주위 집중과 반복 학습에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동영상의 정지 화면을 사용하여 동작을 따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천천히 동작을 연습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접속되는 곳이라면 어떤 장소에서든 다양한 기기에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의 학습이 용이하다.



중도중복장애학생 몸짓상징-"손담"

게시자: 국립특수교육원 · 동영상 204개 · 조회수 40,198회 · 최종 업데이트: 2019. 1. 28.

"손담"은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개발된 몸짓상징입니다. 중도·중복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구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장애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안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특수교육원(상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본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방 주소: <http://www.nise.go.kr/onmam> 더보기

▶ 모두 재생
< 공유
+ 저장

1	 [국립특수교육원] 몸짓상징 "손담" 001 가다 게시자: 국립특수교육원	0:17
2	 [국립특수교육원] 몸짓상징 "손담" 002 가렵다 게시자: 국립특수교육원	0:16
3	 [국립특수교육원] 몸짓상징 "손담" 003 가빙 / 004 가빙을 메다 게시자: 국립특수교육원	0:23
4	 [국립특수교육원] 몸짓상징 "손담" 006 가족 게시자: 국립특수교육원	0:22
5	 [국립특수교육원] 몸짓상징 "손담" 008 갈다 게시자: 국립특수교육원	0:18
6	 [국립특수교육원] 몸짓상징 "손담" 009 건다 게시자: 국립특수교육원	0:21
7	 [국립특수교육원] 몸짓상징 "손담" 010 걸레 / 011 걸레로 닦다 게시자: 국립특수교육원	0:21

[그림 III-16] 유튜브 손담 영상

IV. 시각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손담 활용 방법

손담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소미는 아침부터 무척 바빠졌다. 매일 선생님을 뵈 때마다 엄마가 소미의 머리를 꼭 눌러 인사를 시키셨는데 손담을 배운 이후로는 먼저 인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공부 시간에도 소미는 무척 바빠졌다. 그동안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소미가 처음 만지는 물건을 덩석 손에 쥐어 주시는가 하면 소미가 먹고 싶지 않은 간식도 소미의 포크에 찍어 주셨지만 이제는 꼭 물어봐 주시고 소미가 스스로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과제를 할 때 ‘싫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담임선생님께 하던 ‘싫어요’ 표현을 음악 선생님은 이해하지 못하시는 바람에 그냥 활동했지만 이제는 담임선생님도 음악 선생님이 엄마도 소미가 하는 손담을 보시고 소미의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 신이 난 소미는 수다쟁이가 되었다. 어떻게 하면 소미가 마음과 생각을 더 자주,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을까?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몸짓상징 손담이 개발되었다. 이에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써의 몸짓상징의 의미와 학습 특성, 손담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점, 손담을 활용한 구체적인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1.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의사소통과 몸짓상징 손담

1) 시각중복장애학생의 특성

시각중복장애학생은 시각 손상으로 인한 경험의 부족과 개념 이해, 모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언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소리나 냄새, 촉각과 같은 다른 감각을 통해 정보를 얻는 데에 더 많이 의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은 시각장애로 인해 시각중복장애학생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특성들이다.

가. 정보 습득과 개념 이해의 특성

시각은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 모든 정보를 통합하는 감각으로, 환경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시각의 손상은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경험할 기회를 제한하며, 청각이나 촉각은 시각에 비해 단편적이고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므로 종합적인 정보 습득과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청각은 소리와 방향에 대한 단서는 주지만 크기나 형태 등과 같은 정보를 주지는 못한다. 그리고 하늘, 안개, 구름, 슬픔, 기쁨 등과 같이 촉각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사물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경험의 부족이 누적되면 개념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새로운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한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을 다른 장면에서 일반화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일상 생활을 하는 실제 장면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신체 및 운동 발달의 특성

시각중복장애학생은 시각을 통해 주변의 물체를 바라보고 손을 뻗거나 다가가는 등의 신체 활동에 동기를 가지거나, 가족이나 또래의 신체 행동을 모방하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신체 운동 발달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청각·촉각 자극의 제시와 보행교육을 통해 신체 및 운동 기능이 발달하고 바른 자세나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연령에 적합한 다양한 신체 활동의 기회와 지원을 통해 신체 및 운동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 상호작용과 몸짓 사용의 특성

시각중복장애학생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누군가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거는지, 친구가 옆에 오거나 갔는지, 주변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눈 맞춤’ 대신 팔을 툭툭 치는 신체적 접촉을 사용해 의사소통의 시작을 알릴 수 있다.

먼저 상호작용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오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시각중복장애학생도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한 반응으로 시선이나 얼굴 표정, 자세의 변화와 같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몸짓을 한다. 때때로 몸짓의 활용에 능숙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몸짓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몸짓을 통해 의사소통을 해 본 경험이 적기 때문일 뿐 시각중복장애학생들도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몸짓을 사용할 수 있다.

라. 교수·학습 환경과 관련된 특성

시각중복장애학생 중 시력이 전혀 없는 학생은 매우 적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빛이나 움직임 감지할 수 있고 어렵듯이 형태만 보는 경우도 있는 등, 그 시력의 정도와 특성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이 몸짓상징을 학습할 때에 필요한 보조기기의 지원은 시각 손상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학생 개개인의 요구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은 시각적 정보의 부족으로 공포감을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반복된 안내와 도움이 필요하다. 잔존시각을 이용하여 시각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이나 사진을 설명해 주는 음성 자료, 관련된 실물, 입체 복사 등으로 재구성하여 제공한다.

몸짓상징을 관찰하고 모방할 때에 부적절한 조명이나 빛의 번쩍임 등이 방해가 될 수 있다. 학생이 몸짓상징 손담 표현을 학습할 시에 최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의 시력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저시력 학생이 정보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시각 정보를 명확히 식별하고 정보를 얻기 위하여 화면 확대 프로그램의 도움 받을 수 있다. 단, 확대경을 사용해 상을 확대시키면 그만큼 시야는 좁아지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의사소통과 몸짓상징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다양한 AAC도구들이 활용된다. 시각중복장애학생은 AAC도구에 녹음된 음성이나 소리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잔존시각의 정도에 따라 그림, 사물 또는 촉각 자료를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컵 그림이나 실제 컵으로 ‘물 주세요’를 표현할 수 있고 그네의 줄(실제 그네의

줄이나 줄의 일부분)은 ‘그네 타고 싶어요’를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렇듯 시각중복장애학생은 자신의 감각 특성에 따라 촉각적인 단서나 잔존 시력을 활용하여 의사소통판이나 의사소통 책에 있는 상징체계를 가리킬 수 있으며, 사물이나 사물의 일부분을 의사소통 상대방에게 건네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AAC를 통해 의사소통 방식이 다양하게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적절한 의사소통 교육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은 체계적인 상징체계와 다양한 AAC도구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시각적으로 의사소통 상징체계를 변별하여 학습하거나 AAC도구에서 산출되는 단어와 그 의미를 바르게 연결 짓지 못해 어휘를 학습해 확장하거나 일반화하여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Rogow, 2005; Trief, E., 2007). 또한 촉각 변별이나 잔존시각만을 기반으로 하는 AAC도구의 경우에는 만질 수 없는 것이나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것 등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의 의사소통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황정현 외, 2019).

몸짓상징 ‘손담’은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간단한 ‘손 표현’을 기본으로 하되, ‘몸동작’을 이용한 표현을 함께 사용하도록 개발된 의사소통 상징체계이다. 이러한 몸짓상징을 사용한 의사소통은 표현이 단순하여 사용이 간편하고 시간, 비용 등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유용한 수단 중 하나이다(국립특수교육원, 2017).

무엇보다도 몸짓상징은 도구를 사용한 의사소통 방법에 비해 간단한 손 표현으로 이해와 표현이 용이하고 대화 상대가 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거나 대화의 흐름이 단절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여기에 구어와 병행하여 사용할 경우, 구어로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을 보완할 수 있으며 중요한 낱말을 강조하여 의사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다. 몸짓상징은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지속적인 확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능력 수준에 따라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몸짓상징의 강점들로 인해 시각중복장애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대되는 AAC 방법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이미 수어 표현을 손으로 만져서 의사소통 하는 촉수어, 학생의 손을 잡고 몸짓상징 표현을 만들어 학생이 몸짓상징 표현을 바르게 하도록 돕는 방법인 공동수어, 팔이나 등과 같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고 표현하는 신체수어 등의 전략을 활용한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몸짓상징은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손담 지도

1) 의사소통을 위한 준비 - 의사소통 환경 갖추기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손담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의사소통을 위해 손담을 인위적으로 직접 가르치는 것은 표현과 의미 간의 연관성을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학생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손담을 적용하여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매일의 일과를 일관성 있게 진행하여 하루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손담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익숙해지도록 도우며,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수월하게 접근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가정과 교실의 물리적인 환경에서 매일 일관성 있게 손담으로 의사소통하여 자연스럽게 손담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빛을 전혀 느낄 수 없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잔존시력이 있는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의 시각 특성과 시기능도 각각 다르다. 밝은 조명을 선호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밝은 빛에 민감하거나 눈부심이 발생하여 어두운 조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각 학생의 시력과 시야도 다 다르다. 시야 전체가 뿌옇게 보일 수도 있고 시야 일부가 왜곡되어 보일 수도 있으며, 잔존 시야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일부로만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학생의 시력과 시야, 눈부심 유무, 선호하는 조명과 대비 조건 등 각 학생의 시각 특성을 고려하여 손담 표현을 학습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는 시각으로 손담 표현을 볼 수 있었던 학생이 햇빛이 강한 실외에 나갔을 때 눈부심으로 인하여 손담 표현을 전혀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알고 상대방의 손담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해야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사소통 상대방의 위치와 손담 카드 등 관련 자료의 위치, 제시 자료의 크기 또한 손담 표현을 관찰하거나 모방하고 습득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잔존시력이 있는 시각중복장애학생 중에서 시야가 좁지만 중심시력이 좋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담 표현을 관찰하고 모방할 때 조금 떨어져서 시야 안에 상대방의 표현이 다 보이는 위치에서 보는 것이 좋으며 손담 카드를 축소하여 제공하면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야가 좁아서 상대방의 손담 표현의 일부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표현을 만져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확대했을 때 더 잘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확대경이나 확대독서기, 화면 확대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몸짓상징 표현 그림이나 상대방의 표현을 보여주거나 표현 그림 자체를 확대하여 제시할 수도 있다.

넷째,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손담을 습득하고 의사소통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의사소통 상대방의 인내가 필요하다. 단시일에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하며 재촉하다가 포기하기보다는 일상생활 중에 손담 표현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적용하면 의사소통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2) 손담 지도 방법

가. 어휘 선정 방법

손담 표현 중에서 의사소통에 우선 적용할 어휘를 선정할 때에는 일상생활 맥락에서의 필요,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며, 손담 표현으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동기 유발을 위하여 각 개인의 흥미와 선호를 고려한다.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손담 표현과 표현이 의미하는 대상과의 연관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담 적용 초기 단계에서는 일상생활 중에 수시로 사용하는 어휘, 표현에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어휘,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어휘 등이 유용하다.

손담 표현 중에서 어떤 어휘를 먼저 가르쳐야 할지 결정할 때, 환경 분석표를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가정과 학교 등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일상생활 중에 머무는 장소마다 주요 활동별로 의사소통에 필요한 어휘를 정리해 본 후 그중에서 우선 필요 어휘를 선정한다. 우선 필요 어휘 중에서는 장소별 최우선 필요 어휘를 선정하고, 교사와 보호자 등이 함께 의논하여 학생의 최우선 필요 어휘를 정하여 먼저 적용한다. 가정에서의 활동은 식생활, 의생활, 위생생활, 건강생활, 여가생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의 활동은 담임 수업, 교과 수업, 식사 시간, 쉬는 시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손담 표현 지도 방법

시각중복장애학생에게 손담 표현을 지도할 때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손 표현을 가르칠 때 의사소통 상대방과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손을 잡고 손담 표현을 함께 표현해 보는 방법, 학생의 손 모양과 움직임을 직접 가르쳐 주는 방법,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따라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때 학생이 거부감 없이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손담 표현 동작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의 손 위에 학생이 손을 얹는 ‘손 아래 손’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학생이 손담 표현을 익히는 과정에 거부감이 적어지면, 표현을 보다 정확하고 정교하게 수정하기 위해 상대방이 학생의 손이나 손목을 잡고 동작의 모양이나 방향을 안내하는 ‘손 위 손’ 방법을 적용한다.



[그림 IV-1] ‘손 아래 손’ 전략

학생의 손 아래에 교사의 손등을 대어, 신발을 표현하고 있는 교사의 손 모양을 탐색하고 표현함



[그림 IV-2] ‘손 위 손’ 전략

교사가 학생의 손목을 잡고 앞뒤로 움직이며 기차 표현의 동작을 안내함

둘째, 시각중복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손을 고려하여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 좋으며,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손의 모양과 움직임을 바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상대방의 손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셋째, 물체의 모양이나 동작을 본떠서 만든 손담 표현을 지도할 때는 이 표현과 관련된 일상의 상황에서 관련 물체나 동작을 만져본 후 표현을 지도한다. 이를 닦는 동작을 본떠서 만든 ‘칫솔/양치질하다’ 표현을 지도할 때는 이를 닦기 직전이나 직후에 표현을 지도한다. ‘과일/사과’ 표현을 지도할 때는 둥근 모양의 과일을 만져본 후에 표현을 지도한다. ‘나누다(나눠 주다)’, ‘머리 빗다’, ‘세수하다’ 등의 표현도 일상생활 중에 실제 행동과 연관 지어 표현을 지도하는 것이 좋다.



[그림 IV-3] 물체 단서를 활용한 몸짓상징 표현 학습

다. 손담 표현의 적용 및 수정 방법

시각중복장애학생에게 손담 표현을 적용하는 방법과 수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의미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손담 표현을 적용할 때 상대방의 표현을 볼 수 없다면 촉각적으로 수정하여 적용하거나 촉각적인 다른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시각적인 표현을 촉각적으로 수정하여 적용한 예를 들면, ‘앉다/의자’ 어휘는 한 손의 손바닥 위에 다른 손의 주먹을 올려서 표현한다. 그러나 시각장애로 인하여 상대방의 표현을 볼 수 없다면 시각중복장애인의 한 손 손바닥 위에 의사소통 상대방의 주먹을 올려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기다리다’는 한 손을 펴 손등을 턱 밑에 대어 표현하는데 상대방의 표현을 볼 수 없다면 상대방의 한 손을 펴 손등을 시각중복장애인의 턱에 대어 표현할 수 있다. 즉, 시각중복장애인의 손 또는 몸에 표현하여 요청할 수 있다.



[그림 IV-4] 시각적인 표현을 촉각적으로 수정·적용한 예

② 시각적인 표현을 촉각적인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경우의 예를 들면, ‘고맙다’의 손담 기본 표현은 고개를 숙였다가 드는 것이지만 시각중복장애학생끼리 표현할 때나 학생에게 표현할 때는 ‘고마워’라고 말하며 손등을 쓰다듬어 표현할 수 있다. 또 ‘느리다/천천히’의 기본 표현은 가슴 앞의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위치한 양손을 손등이 위로, 손끝이 앞으로 향하게 펴 천천히 아래로 내려 표현하지만 시각중복장애학생에게 또는 시각중복장애학생끼리 표현할 때는 학생의 손등에 상대방의 손바닥을 대고 가로질러 천천히 이동시켜 천천히 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림 IV-5] 시각적인 표현을 촉각적인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예

둘째, 시각중복장애학생에게 손담 표현을 지도할 때 기본 표현 적용을 고려해 본 후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이 쉽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① 두 손을 사용한 표현을 한 손으로 표현해도 된다. 예) 답다, 주세요
- ② 움직이는 동작이 포함된 표현을 정지 동작으로 표현해도 된다. 예) 듣다, 배고프다
- ③ 특정 손가락을 이용한 표현을 다른 손가락이나 주먹, 또는 손을 펴서 표현해도 된다. 예) 위/올라가다, 아래/내려가다
- ④ 곡선으로 표현하는 동작을 직선으로 표현해도 된다. 예) 버스, 하늘
- ⑤ 팔을 기준으로 공간을 구분하는 표현을 몸을 기준으로 표현해도 된다. 예) 안
- ⑥ 허공에서 움직이는 동작을 책상 표면이나 손바닥 등에 표현해도 된다. 예) 화장실
- ⑦ 두 개의 동작으로 이루어진 표현은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일상의 맥락 속에서 한 개의 동작으로 표현해도 된다. 예) 교실

셋째, 손담으로 표현할 때 오른손과 왼손이 바뀌어도 의미는 동일하다. 따라서 양손 중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손, 표현하기 수월한 방향으로 표현한다. 시각중복장애학생과 몸짓상징으로 의사소통할 때 표현의 모양과 위치, 방향이 일관되게 제시되어야 혼돈을 피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라. 손담의 의미 이해를 돕기 위한 전략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이 손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손담 표현은 표현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개발되었다. 하지만 손담 표현도 상징이다. 즉, 손담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표현과 지시대상과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각중복장애인의 가족, 교사와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일관성 있게 표현을 사용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손담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정한 표현과 적용 방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한 알림장, 또는 개인 표현 사전 등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생활 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면 일반화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이 한 장소에서 익힌 표현을 생활의 여러 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몸짓상징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손담을 인위적인 상황에서 지도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중에 구체적인 실제 장면에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된 몸짓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손담 표현과 이 표현이 의미하는 대상과의 연관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형상이 있는 어휘에 대한 표현을 가르칠 때 관련 실물을 만져보게 한 후 표현을 가르쳐 주며, 호칭에 대한 표현을 가르칠 때는 실제 인물이 함께 있을 때 표현을 함께 해 본다. 예를 들면, ‘치약’ 표현은 이를 닦는 상황에서 가르치며 치약을 만진 후 ‘치약’ 표현을 지도하여 표현과 지시대상과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손 표현을 가르칠 때 이해를 돕기 위해 촉각 단서, 청각 단서, 시각 단서, 후각 단서 등을 사용한다. 단서를 줄 때는 산만해지지 않도록 한 가지 단서만 주거나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면, 화장실에 가야 할 때 촉각 단서 ‘휴지’를 손에 대어 준 후 청각 단서로 ‘화장실’이라고 말해 주고 그 후에 손담 ‘화장실’ 표현을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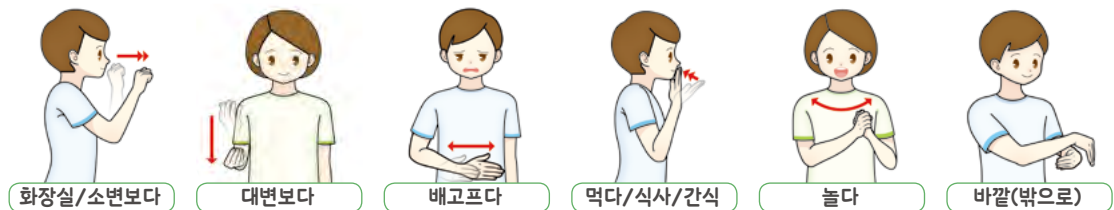
[그림 IV-6] 손담의 의미 이해를 돕기 위한 단서 제공의 예

넷째,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과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은 관련된 상황 중에 지도한다.

마. 긍정적 행동 지원과 연계한 손담 지도

시각중복장애학생 중에는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해 도전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 행동 또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요구를 수용 가능한 바람직한 방법으로 바꾸어 표현하도록 가르치고 연습시키면 학생의 도전 행동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다음은 학생이 자신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 도전 행동을 예방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손담 표현의 예이다.



[그림 IV-7] 학생의 요구를 표현하는 손담 표현의 예

학생이 손담 표현을 하는 즉시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여 표현에 대한 강화를 즉각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의 도전 행동에 대해 교사가 반응을 보일 때 촉각적 접촉을 통한 수정된 손담 표현을 활용하면 보다 즉각적이고 일관되게 행동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림 IV-8] 학생의 도전 행동에 대처하는 교사의 손담 표현의 예

바. 손담 교수·학습자료 활용 시 유의 사항

몸짓상징을 학습할 때 학생의 시력과 시야 등 시각 특성을 수시로 살펴 교사와 자료의 위치를 조정해야 한다. 시기능 특성에 따라 교수 환경을 조정하고 손담 카드의 글자나 삽화의 크기, 대비, 조도, 거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습을 전개한다. 저시력 학생을 위해 때로는 명확하고 크게 구성되어 있는 삽화와 글자를 적용한 낱말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이 선호하는 배경 색상으로 손담 카드를 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종이는 눈부심이 없는 재질을 선택하며, 글씨체는 일반적으로 고딕체가 읽기 용이하다. 경우에 따라 확대기나 확대경을 함께 사용한다. 학생의 시각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손담 카드와 삽화나 사진을 흑백으로 확대 복사하여 활용하여도 좋다. 또 어휘의 배치는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의 정해진 방향으로 정렬하여 저시력 학생이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림 IV-9] 저시력 학생을 위한 몸짓상징 「손담」카드 제작의 예

사. 시각중복장애학생을 대하는 의사소통 상대의 중요성과 역할

몸짓상징 손담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상대방의 시각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시각장애와 함께 지적장애 등 다른 장애를 겸하고 있는 시각중복장애학생도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상호작용의 단서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의사소통 상대방은 시각중복장애학생의 표정, 목소리, 눈짓, 몸의 움직임, 행동 등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여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내어 몸짓상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시각중복장애학생들 중에는 자발적인 자신만의 몸짓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그 표현의 의미가 분명하다면 이 몸짓을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명확하게 반응을 하여 몸짓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인식시켜 주고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시각중복장애학생과 몸짓상징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상대방과 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각중복장애학생과의 몸짓상징 의사소통은 촉각적 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대방의 손과 자신의 손이 맞닿거나 상대방의 손이 자신의 얼굴, 팔 등에 닿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대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될 것이다.

시각중복장애학생이 몸짓상징의 모양과 움직임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직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몸짓상징 표현을 관찰하거나 손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며, 천천히 정확하게 표현하여 모델이 되어주고 모방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준다. 학생의 자발적인 미세한 몸짓상징 표현에도 적극적으로 즉각 반응하여 표현의 즐거움과 의사소통 성공의 경험을 제공한다. 의사소통에 성공한 작은 경험들이 쌓여야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해 갈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미세한 반응과 미세한 표현을 놓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 학생에게 집중한다.

시각중복장애학생이 몸짓상징의 의미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상대방은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중에 동일한 상황에서 몸짓상징을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상대방의 긍정적이며 일관성 있는 반응, 칭찬과 격려는 몸짓상징으로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동기와 자신감을 준다.

3. 손담을 활용한 의사소통 지도 사례

시각중복장애학생들도 부모와 교사의 일관성 있는 지도와 반복된 학습을 통하여 손담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시각중복장애학생들에게 손담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는 사례들이다.

1) 이렇게 시작해 봐요: 손담 기본 표현으로 의사소통하기

손담의 기본 표현을 학교나 가족 구성원 및 그 외의 학생과 관련 있는 모든 사람이 익히고 시각중복장애학생과의 의사소통에 적용하여 상호작용의 기회를 넓혀준다.

기본 표현 적용의 예: 우리 가족을 소개해요

이 활동은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손담의 기본 표현으로 가족의 호칭을 익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소통의 기회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둔다.

담이

나는 아빠, 엄마, 누나,
그리고 동생과 함께
살고 있어.



담이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야.



기본 표현 배우기



지도상의 유의점

- 학생이 가족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부르면 학생의 이름을 불러 주며 긍정적으로 반응해 준다.
- 가족이 곁에 있을 때 해당 호칭과 함께 동작을 지도하여 학생이 의미와 표현을 연결 짓게 해 준다.
- ‘가족’을 표현할 때는 의사소통 상대방의 손등에 학생의 손을 올려 손끝을 맞춘 채 상대방이 동작을 하여 움직임을 느끼게 해 준 다음에 학생의 손을 잡고 동작을 지도한다.
- ‘오빠/형/언니/누나’와 ‘동생’을 표현할 때는 학생이 손의 동작을 먼저 느끼도록 한 다음 상대방이 학생의 손을 잡고 지도한다. 이때 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손을 올리고, 내리도록 해준다.

2) 이렇게 가르쳐 봐요: 손담 기본 표현을 수정하여 적용하기

모든 학생들이 모두 같은 몸짓상징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기본 표현을 시각중복장애학생에게 적절하게 수정하여 적용한다.

수정 표현 적용의 예: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이 활동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상황에서 기본 표현을 시각중복장애학생에게 적절하게 수정·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담이

선생님,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대변볼래요.



선생님

휴지 갖고 가거라.



수정 표현 배우기

손담 표현	수정된 표현	손담 표현	수정된 표현
 화장실/소변보다	 • 한 손의 손끝을 위로 향하게 펴고, 손바닥을 다른 손 주먹으로 두드려요.	 휴지	 • 양 손을 편 후 한 손에 다른 손을 대고 돌려요. 학생의 손을 잡고 표현해요.

지도상의 유의점

- 화장실에 갈 때마다 화장실 문을 두드린 직후에 동작을 지도하여 의미와 표현을 연관 지어 이해하도록 돕는다.
- 가정, 학교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일관성 있게 표현을 적용하여 점차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표현을 확장해 봐요: 두 가지 이상의 표현 연결하기와 단서 사용하기

두 가지 이상의 손담 표현을 연결하거나 이해를 돕는 단서를 활용하면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의 표현이 보다 풍부해진다.

표현 확장하기의 예: 내일 다시 만나

이 활동은 학교 공부를 마친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손담 표현을 연결하여 표현하기와 단서를 통하여 이해를 돕는 방법을 제시한다.

답이

아! 공부 끝났다.
집에 간다.



선생님

가방 메고
버스 타러 가야지.
계단에서는 천천히
내려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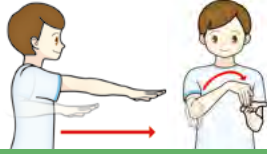


두 가지 표현 연결하기

- 교통 수단과 '타다'를 연결해서 표현해 봐요.

담이

지하철 타요.



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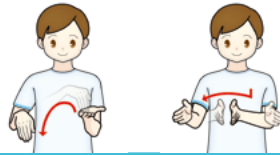
자동차 타요.



- '내리다'와 관련 어휘를 연결해서 표현해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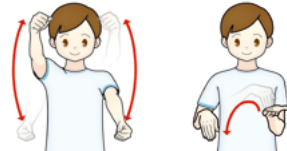
선생님

내릴 준비하자.



선생님

버스에서 내리자.



단서를 사용하여 이해 돕기

학생과 함께 '버스' 표현을 한 다음 학생이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가기 직전에 학생의 손바닥에 교사의 손가락을 계단 수만큼 갖다 대며 계단을 세어 준다.

선생님

계단이 하나, 둘, 셋.



4) 현장 적용 사례 1

영준아, 미안해

영준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최근에 선생님한테 손담을 배우고서는 늘 신이 나요. 교실에 들어서면 선생님부터 부르지요. 그 전에는 선생님을 부르고 싶어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선생님을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급식실을 가다가도 선생님을 불러 봐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응, 영준아, 선생님 불렀니?”라고 대답해 주세요. 최근에는 ‘물’도 배웠고, ‘과자’도 배웠어요.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면 영준이는 늘 ‘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영준이를 정수기 쪽으로 안내해요. 영준이는 정수기에서 물 받는 것을 무척 좋아해요. ‘쫄르륵’ 컵 안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재밌나 봐요.

무척 더운 어느 날이에요. 평소에는 급식실 정수기 물을 조금씩 여러 번 받아서 마시는 영준이가 그날은 딱 두 번만 물을 받더니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실로 내려오자마자 교실 문 앞에서 갑자기 ‘물’이라고 하며 교실에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는 거였어요. 교실에 안 들어가겠다고 버틴 적이 없는 영준이가 그러니 선생님은 의아했어요. 식당에서는 물을 조금만 마시더니 갑자기 교실 문 앞에서 ‘물’을 마시겠다고 하니깐요. 선생님은 ‘아, 과자를 물로 잘못 표현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는 영준이의 손을 잡고 주먹 모양으로 만든 뒤 영준이의 뺨에 갖다 대셨어요. “과자 달라고? 여긴 과자가 없지? 교실에 가면 있어.”라며 자꾸 교실로 가자고 했어요.

영준이는 ‘물’을 달라는데 선생님이 자꾸 ‘과자’ 표현으로 바꾸시니 답답했어요. 계속 엄지손가락을 입술 아래에 대며 ‘물’이라고 했지만 선생님은 계속 ‘과자’라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영준이는 울음이 나오려고 했지만 좋아하는 담임 선생님 말을 듣기로 하고 일단 교실로 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물’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뭔가를 깨달았나 봐요. 얼른 영준이를 교실 앞 정수기로 데리고 갔어요. 영준이는 교실 앞 정수기로 물을 잔뜩 마셨어요.

선생님은 물을 마시는 영준이를 보며 왜 영준이가 교실 앞 정수기에서 잔뜩 마시려고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 식당 정수기 물은 미지근한데 교실 앞 정수기에서는 시원한 물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 전에 교실 앞 정수기에서 물을 마셔 본 영준이가 시원한 물이 마시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교실 앞 정수기 물을 마시겠다고 한 거였어요. 뒤늦게 그걸 깨달은 선생님은 영준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어요. 물론 손담으로 사과했지요.

5) 현장 적용 사례 2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나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아요. 학교에 와서 선생님한테 손담을 배우기 전에는 누구나 나를 일으키려면 내 팔을 잡고 끌어당겼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세게 당겨서 내 팔이 아플 때도 있었어요. 집 밖으로 나를 데리고 가면 어디로 가는 건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지?' 마음속으로 엄마한테 물어보지만 엄마는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교회에 가기 전에 엄마는 내게 나무로 만든 작은 십자가를 쥐어 주세요. 그러면 나는 '아, 교회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겠구나.'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은 나에게 어디로 가는지 미리 알려 주세요. 나에게 일어서라고 하기 전에 말랑말랑한 작은 공을 쥐어 주세요. 그러면 나는 '이제 체육관에 가는구나'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요. 그리고 선생님은 내 손바닥 위에 선생님 손가락 끝을 올려놓으세요. 나는 선생님이 내 손바닥에 선생님 손가락 끝을 올려놓으면 '일어선다'는 것도 알아요. 내 팔을 끌어당기지 않으니 팔도 아프지 않고 참 좋아요.

지난 번에 우리 교실에 실무사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내게 어디로 가는지 알려 주지도 않고는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내가 일어서고 싶겠어요? 나는 기분이 나빠져서 안 일어나고 버텼어요. 그때 우리 선생님이 내게 오시더니 작은 점토통을 쥐어 주고는 일어서라고 하셨어요. 고마운 우리 선생님~ 그 통은 '미술실에 간다'는 표시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었으니 당연히 벌떡 일어났지요.

또 한 번은 그 실무사 선생님이 자꾸 제 등을 미는 거예요. 어찌라는 건지 알 수도 없고 기분만 나빴어요. 그런데 이때도 우리 선생님이 오시더니 손 표현으로 '가방 메라'고 해 주셨어요. '아, 가방 메라고?' 나는 얼른 가방을 땄어요. 얼마 전에는 점심시간에 맛을 음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제게 손 표현으로 '다 먹었니?'라고 묻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손을 턱 밑에 대며 '기다리세요.'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나한테 '잘했다'며 마구마구 칭찬을 해 주셨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 선생님 같으면 참 좋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라는지도 알려 주세요. 그리고 내가 손담으로 표현하면 잘했다며 칭찬을 많이 해 주세요. 나는 우리 선생님이 참 좋아요.

4. 새로운 시작 앞에서

시각중복장애학생에게 몸짓상징인 손담의 적용은 어렵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그러나 시각중복장애인을 위한 가장 오랜 의사소통 방법으로 시각중복장애학생의 AAC도구의 활용의 제한점과 관련하여 구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중복장애학생에게 적합한 AAC로 몸짓상징의 활용이 추천되고 있다(Dimensions Behaviour Support team, 2015). 이미 여러 사례에서 손담이 의미있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실패를 반복하며 좌절감을 경험 한 시각중복장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이 확인되고 있다.

앞서 안내한 것과 같이, 부모와 교사뿐만 아니라 손담 활용이 기대되는 시각중복장애인의 주변인 모두가 손담을 먼저 익혀 학생과 더 자주 묻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중요한 손담의 성공적 사용의 열쇠이다.

새로운 도전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새롭게 손담의 표현을 익히고 시각중복장애학생들에게 전하는 과정이 수고롭고 번거롭게 느껴질 때마다 몸짓상징 손담을 사용하며 학생이 보다 생기 있게 사회 속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자. 손담은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주변 세계와 연결될 수 있게 해 주는 연결고리가 되어 줄 것이다.

V. 중도지적·자폐성장장애학생을 위한 손담 활용 방법

지금은 실습실에서 요리 수업이 한창이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다 함께 맛있는 쿠키를 만들 생각에 기분이 들떠 있다. 선생님께서 쿠키 만들기에 필요한 반죽 재료를 학생들에게 나눠 주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는 순간, 지영이가 반죽 주걱을 바닥으로 던졌다. 영문을 모르는 선생님은 지영이에게 무슨 일인지를 물어 보았다. 하지만 지영이는 말로 자신의 생각과 표현을 나타내기 어려워 씩씩거리며 화만 내고 있었다. 이에 선생님은 무슨 일일까 고민에 빠졌다. 한참 후 지영이의 책상을 바라본 선생님은 그제서야 지영이의 책상에 반죽 재료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 지영이는 반죽 주걱을 왜 던졌을까?
- 지영이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을까?
- 어떻게 하면 물건을 던지지 않고 지영이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을까?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도지적·자폐성장장애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구어와 함께 다양한 보완대체의사소통 방법들이 제시되었지만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손과 몸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손담이 개발되었다. 이 장에서는 중도지적·자폐성장장애학생의 의사소통 특징 및 손담의 필요성, 손담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점, 손담을 활용한 구체적인 의사소통 사례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중도지적·자폐성장장애학생의 의사소통과 몸짓상징 손담

1) 중도지적·자폐성장장애학생의 의사소통 특성

손담은 구어 발달이 어렵거나 매우 지체되어 있어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하기 어렵고, 비구어적 형태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용될 수 있다. 중도지적·자폐성장장애학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특성을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손담을 활용하도록 한다.

첫째, 인지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표현 습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거나 학생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요구나 개념들에 대해 먼저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도지적·자폐성장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주의집중 시간이 매우 짧고,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거나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므로 학생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표현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먼저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제한적인 의사소통 의도 및 방식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요구된다. 중도지적·자폐성장장애학생은 발성과 표정, 몸짓이나 자세, 긴장 정도, 방향의 움직임, 상대방에게 접촉을 시도하거나 주변 물체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의사소통 형태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학생이 비상징적 의사소통 행동을 통해 무언가를 표현하더라도 대화 상대가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언어발달이 심하게 지체

되거나 구어가 아예 발달하지 않을 수 있고, 일부는 상대방의 말을 의미 없이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따라 하는 반향어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손담과 같은 직관적이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셋째, 부족한 사회적 기술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이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요구된다. 학생들은 주변과의 상호작용에서 지속적인 거부감을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를 수 있다. 특히 자폐성장애의 경우 얼굴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회적 규칙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직관적이고 따라 하기 쉬운 손동작이나 몸짓 표현 등의 모방을 통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성 기술과 표현들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언어발달에 심각한 지체가 있거나 구어를 통한 의사 표현이 어려워서 자신의 의사나 주변 환경의 통제를 충분히 할 수 없을 경우, 도전 행동(예: 공격 행동이나 자해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도전 행동에는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 만약 의사소통 기능을 가진다면 도전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손담을 활용할 수 있다.

2) 중도지적·자폐성장애헌생의 손담 사용 필요성

중도지적·자폐성장애헌생의 경우에는 나이가 어릴수록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구어가 아닌 보완대체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했을 때 구어 발달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손담은 구어 발달을 저해하는 표현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다음과 같이 언어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첫째, 구어와 함께 손담 표현을 병행하여 지도할 때 언어 표현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 정확하지 않은 구어 표현과 의사소통 행동 표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부분적인 언어 표현은 있으나 어휘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자발어가 없는 경우, 손담 표현을 통해 자발적인 표현을 이끌어내며 사회적 관계를 촉진하고, 표현 어휘의 수를 확장시킬 수 있다.

셋째, 구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도 손담 표현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그동안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주변 동료나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친밀감을 나누고, 공동체 속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손담 표현으로 사회성 어휘를 배우면서 공동체 환경에서 서로에게 좋은 모델링 효과를 줄 수 있다.

적용 사례 1. 정확하지 않은 의사 표현 보완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못하는 경우, 화장실에 갈 때 마다 손담 표현을 하도록 지도하였다. 정확하지 못한 동작 지도를 위해 노크하듯이 선생님의 손바닥을 두드리며 표현을 익히도록 하였다.



적용 사례 2. 자발적 표현 및 사회적 관계 촉진

친구와 함께 놀고 싶은 마음(예: “같이 놀자”)을 손담을 통해 표현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자발적 표현과 사회적 관계를 촉진하였다.

**적용 사례 3. 사회성 어휘 표현을 통한 상호작용 촉진**

연극놀이 하듯이 사회적 상황(예: “미안해”, “괜찮아”)을 설정하여 손담으로 표현하면서 사회성 어휘를 익히고, 상호작용을 촉진하였다.

**2. 중도지적·자폐성장장애학생의 손담 지도****1) 손담 이외의 다양한 자료를 함께 활용**

중도지적·자폐성장장애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손담을 표현하거나 학습할 때 구어적 표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시각적 자료나 청각적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여 다중적인 감각을 활용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특정 상황에 따른 어휘나 몸짓 표현을 제시할 때 청각 단서를 함께 제시하고, 다양한 시각적 자료(예: 포스터, 그림 카드, 동영상, 상황별 색깔 인덱스 등)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자폐성장장애학생의 경우, 시각적 정보처리 능력에 강점이 있는 시각적 학습자이므로 손담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상징 등을 함께 이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람, 사물, 장소 등 다양한 명사를 학습할 때, 손담과 함께 그림상징이나 사진 자료를 통한 학습을 병행하면 훨씬 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된 표현들을 습득할 수 있다. 상태나 동작을 표현하는 어휘는 손담 표현 자체가 그 어휘를 이해하기 쉽게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 습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침 일과 중 물건 정리하기		
의자를 정리해요	신발을 정리해요	가방을 정리해요
		
앉다/의자	신발	가방/가방을 메다
		
의자	신발	가방

2) 의사소통 기능이 있는 도전 행동과 연계

중도지적·자폐성장장애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 종종 도전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도전 행동은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전 행동의 기능적 분석을 통해 학생이 보이는 행동의 원인과 기능,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행동이 의사소통적인 기능을 가진다면 도전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손담을 제시하고 활용할 수 있다. 자신의 요구를 바람직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가르치고 연습시키면 학생의 도전 행동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학생들에게 다음의 몇 가지 표현을 익히도록 하여 도전 행동 대신 자신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이때 학생이 손담 표현을 하는 즉시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여 표현 자체에 대한 강화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 직접적으로 손담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관련된 그림 카드를 선택하는 행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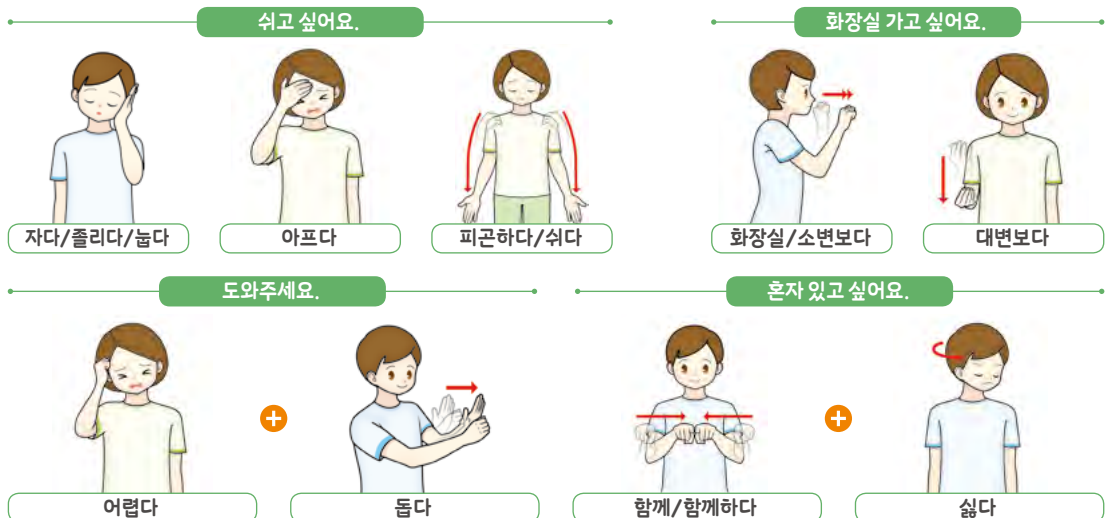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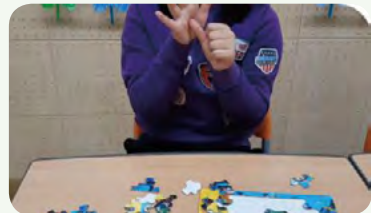
적용 사례 1. 우는 행동

배가 고프거나 간식이 먹고 싶을 때 소리 내어 우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학생에게 “간식 먹고 싶어요.” 손담 표현을 지도하였다. (간식 표현의 경우 한 손 보다는 두 손으로 두드리는 것을 선호하여 인정함.)



적용 사례 2. 도전 행동

학생의 수준보다 약간 도전적인 과제를 주었을 때 교재를 던지거나 돌발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게 “도와주세요.” 손담 표현을 지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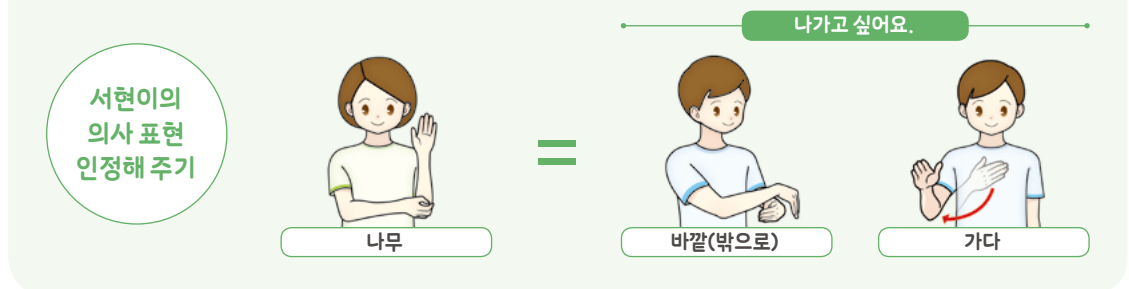




3) 학생이 이미 습득하여 활용하던 기존의 몸짓 표현은 그대로 인정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몸짓 표현이 있는 경우, 기존의 표현들을 인정하고 이를 학생의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다. 다만 통일된 표현을 사용하면 앞으로 의사소통 상대의 범위를 확장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학생의 의사소통 수준을 고려하여 가능하다면 개발된 손담 표현으로 서서히 바꾸어 나가도록 한다.

- 서현이는 가족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느 날 가족이 산책하는 사진을 보면서 서현이가 무엇을 보는지 살펴보았더니 '나무'를 보고 있었다. 사진을 보면서 서현이에게 '나무' 손담 표현을 가르쳤는데 그 이후에 가족과 함께 공원 산책을 가고 싶으면 '나무' 표현을 하게 되었다.



4) 특정 몸짓 표현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유의

손담을 활용함에 있어 특정 동작이나 표현이 장애학생으로 하여금 공격 행동이나 자해 행동을 유발하거나 왜곡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유의한다. 특별히 자폐성장애헤생의 경우, 상동 행동을 보이거나 반향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 손 표현이나 새로운 손담 표현을 학습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이를 또 다른 상동 행동이나 반향어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모방 단계에서 손 표현이나 몸짓 표현을 지나치게 반복 실행하지 않도록 하며, 손담 사용 시 불필요한 움직임에 집착하지 않도록 한다.

3. 손담을 활용한 의사소통 지도 사례

1) 사진일기, 손담으로 말해요.

학생이 직접 경험한 일상생활이 담긴 사진을 보면서 육하원칙에 따른 간단한 질문에 따라 이야기를 구성하고, 핵심어휘는 손담으로 표현하면서 학생으로 하여금 대화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준다. 학교 행사나 활동 참여, 현장 체험학습, 가정에서 주말에 있었던 일 등 다양한 일상 사진을 보면서 학생이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어휘를 선택 하여 손담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하면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여 수업 참여 태도가 좋아지고, 의사 표현 능력이 향상되며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어휘가 점차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손담으로 쓰는 사진일기 예시 자료



※상징을 붙여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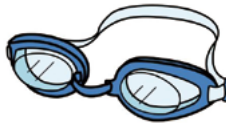


수영장에서 수영해요.

01 무엇이 필요한가요?



수영복



물안경



수영모자

02 무엇을 했나요?



수영해요



샤워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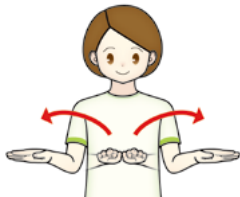
옷을 입어요

03 기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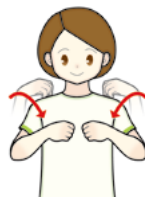


기분이 좋아요

04 몸짓상징 '손담'으로 표현해요



수영해요



옷을 입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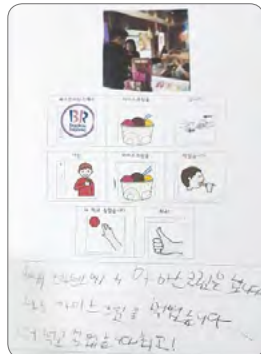
즐거워요(최고)

철수는 지난 주말에 아빠와 함께 수영장에 가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왔다. 철수는 선생님에게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이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이에 선생님은 철수와 사진을 보면서 주말에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수영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기분이 어땠는지 등을 이야기 나누고 이를 사진 일기로 작성하였다. 이 중 '수영해요.', '즐거워요(최고).', '옷을 입어요.'라는 3가지 어휘를 선택하여 손담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하였다.

※그림상징 출처: 웹기반AAC 보드메이커(<http://220.69.171.25:8080/WebAAC>)

중고등학교 사진일기 예시 자료

학교생활 활동 자료



가정 연계 자료



2) 일상생활 규칙, 혼자서도 잘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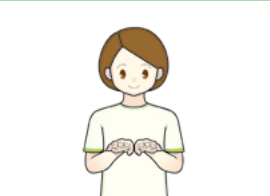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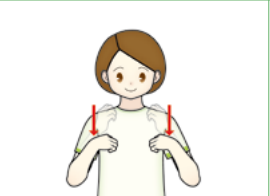
학교 및 학급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규칙을 익히는 과정에서 학생이 생활하는 환경 내 규칙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담 그림 카드나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 하루 일과 점검하기

가정에서 매일 반복되는 하루 일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손담으로 표현하여 스스로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 아침 등교 일과 실행 후 점검하기

손담 표현으로 아침 등교 일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등교 후 자신의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며 하루 일과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바르게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인식하도록 한다. 아침 등교 일과를 실행한 후 학생 스스로 순서대로 점검해 보도록 하며, '점검 기록장'에 스티커를 붙여 기록하는 것과 연계한다.

등교 일과 점검하기 예시 자료			
			
안녕(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신발	가방/가방을 메다	앉다/의자
😊	😊	😊	😊

손담으로 만든 하루 일과표 예시 자료

아침



화장실/소변보다
화장실 가요



세수하다
세수해요



칫솔/양치질하다
이를 닦아요

등교준비



윗옷을 입다
옷을 입어요



(신발, 양말을)신다
양말 신어요



가방/가방을메다
가방을 메요

식사



비누/씻다
손을 씻어요



먹다/식사/간식
먹어요



마시다/목마르다/물
물을 마셔요

저녁



텔레비전/텔레비전을 보다
TV봐요



목욕하다
목욕해요



자다/졸리다/눕다
자요

• 수업 시간에 지켜야 할 규칙 정하고 손담으로 표현하기

수업 시간에 지켜야 할 규칙을 학생들과 함께 정한다. 이러한 규칙은 손담으로 표현하고, 수업 중에 반복적으로 익히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한다.

바른 자세로 앉아요.



앉다/의자

조용히 잘 들어요.



조용히 하다(조용히)

+



듣다(노래, 음악을 듣다)

모르면 질문해요.



모르다

+



저기요(부르는 말)

다시 해봐요.



다시

• 학급의 규칙을 정하기

학급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학생들과 함께 정한다. 정해진 규칙은 손담 그림 카드로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학급 내에 게시하도록 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익히면서 실천한다.

기

기분 좋게 웃어주기



좋다/잘하다

귀

분명히 잘 들어주기



듣다(노래, 음악을 듣다)

키

좋아하는 친구와 눈인사



보다

이

은밀하게 위대하게 도와주기



돕다

발

날마다 걷기



걷다

3) 손담으로 책 읽고 노래해요.

그림책은 다양한 이야기와 상상의 세계를 통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볼 수 있고, 글을 읽지 못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림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어휘를 익히기에 좋다. 줄거리가 많은 책보다는 이야기가 단순하고 그림이 풍부한 그림책을 선정하여 핵심어휘를 손담으로 표현하면서 학생들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한다.

동요나 가요 등 멜로디와 가사가 친숙한 노래를 활용한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보다 재미있게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다. 리듬에 맞추어 손담 동작으로 어휘를 표현하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표현을 따라 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그림책을 읽고 핵심어휘 손담 표현으로 익히기

학습 주제나 습득해야 할 어휘 범주에 따라 그림책을 선정하여 학생들과 함께 읽고, 핵심어휘를 손담으로 표현하며 책읽기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그림책은 다양한 어휘가 포함되어 있어 의사소통을 위한 재미있고 훌륭한 교재라고 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 이현정, 맹앤맹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성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그림책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을 읽고, 그림상징과 함께 손담 표현을 익히도록 지도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습득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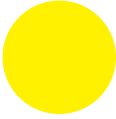


• 그림책을 읽으며 감정 관련 손담 어휘 익히기

지적·자폐성장장애학생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상황에 따른 세밀한 감정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자신의 감정을 부적절한 행동이나 울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손담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림책과 감정 카드를 활용하여 상황에 따라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이해하고, 손담 동작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도록 한다.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고 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하고,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우리 집 일기 예보」 하세가와 요시후미, 책속물고기: 감정 어휘 익히기



감정	색깔	손담 표현	관련 그림책
기분이 좋아요.		 좋다/잘하다	「수잔이 웃어요.」 (진 윌리스) 「놀자!」 (박정섭) 「춤을 출 거예요.」 (강경수)
화나요.		 화나다/기분 나쁘다	「소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 (몰리 뱅) 「화가 둥!둥!둥!」 (김세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괴물 되기」 (강혜숙)
슬퍼요.		 울다/슬프다	「눈물바다」 (서현) 「아기 구름 울보」 (김세실) 「울보 나무」 (카토 요코)
무서워요.		 무섭다	「앗! 따끔!」 (국지승) 「내 꼬리」 (조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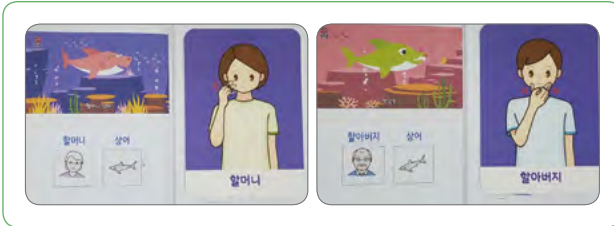
4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림책

- 「우리 집 일기 예보」 (하세가와 요시후미)
- 「기분을 말해봐」 (앤서니 브라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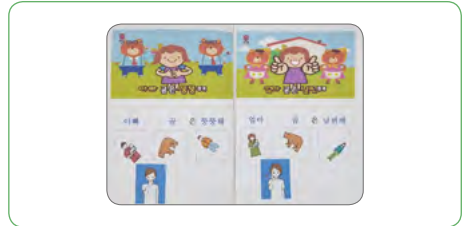
• 노래를 통해 손담 어휘 익히기

학습 주제에 맞는 노래를 선택하여 부르고, 관련 어휘는 그림상징을 통해 이해를 도우며 손담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하면 훨씬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사를 손담으로 표현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관련 어휘를 반복적으로 지도하면 처음에는 동작모방이 힘든 학생들도 교사와 친구들의 동작을 모방하며 점차 비슷한 표현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처음부터 정확한 동작 표현이 어려운 학생들은 비슷한 표현을 인정해 주며 완성해 가도록 격려하면서 지도한다.

‘상어가족’ 그림상징과 손담으로 만든 노래책



‘곰 세 마리’ 그림상징과 손담으로 만든 노래책



안녕하세요?



안녕(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



안녕(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친구야~



친구

인사하는 어린이 착한 어린이



안녕(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좋다/잘하다

4) 손담과 함께 하는 안전교육

안전교육에 손담 표현을 활용하면 핵심어휘를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안전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어휘에 대한 약속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금지어, 지시어, 명령어에 민감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느낌 없이 긴박한 상황에 따른 행동 지침을 전달해 주는 기능을 가진다. 화재 대피 훈련, 자동차 및 지하철 이용 안내, 미아 예방 및 유괴 방지 교육 등 다양한 안전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

• 손담을 활용한 화재 대피 교육

학교에서 실시하는 화재 대피 훈련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해 필요한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 손담으로 안전한 대피 행동 요령을 배우고 안전 수칙을 명확하게 이해하며, 이를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안내
방송

화장실에 화재 발생!
교내에 계신
학생 여러분은
신속하게 대피해 주세요.



선생님

모두 “불이야!”라고
외쳐요.



선생님

수건으로 입을 막고,
계단으로 가요.



선생님

계단을 조심해요.



• 손담을 통한 교통안전교육

학교버스에 탑승할 때 지켜야 할 안전규칙을 순서대로 알아보고, 안전한 습관이 몸에 밸 수 있도록 반복하여 지도한다. 또한 이러한 표현들을 일정한 박자에 맞춰 흥겹게 따라 해 봄으로써 재미있게 익히도록 한다.

자동차에 타면 안전벨트 매고			
			
자동차	(차에)타다	끼다	끼다

지하철에 타면 조용히 쏫!			
			
기차/지하철(전철)	(차에)타다	조용히 하다(조용히)	조용히 하다(조용히)

학교버스에 타면 안전벨트 매고			
			
버스	(차에)타다	끼다	끼다

버스에 타면 흔들흔들 조심해			
			
버스	(차에)타다	나(저요, 제가 할래요)	조심하다

5) 가정과 함께하는 손담 지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학생의 의사소통 표현을 이해하고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손담 표현을 가르친 경우, 또는 가정에서 가족이 손담 표현을 가르친 경우에도 학생의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학생이 배운 표현을 생활 속에서 반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무엇보다 학부모와 교사 간에 손담 사용에 대한 이해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몸짓상징 손담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학생에게 필요한 어휘 목록 작성, 손담 어휘 및 표현에 대한 안내, 학교에서 손담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교와 가정 간에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몸짓상징 및 손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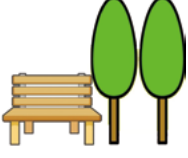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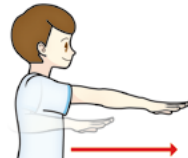
학기 초 학부모 상담이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몸짓상징 ‘손담’이 무엇인지 안내한다.

2019년 6월 18일 (화) 중학교 3학년 1반 학부모 참여수업 안내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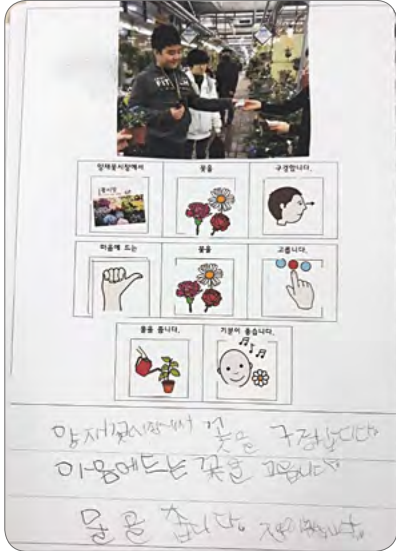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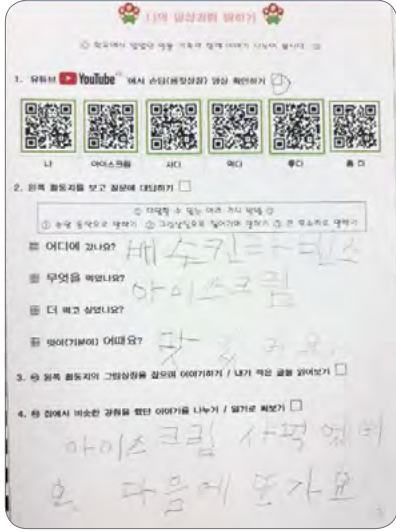
• 우리 반에서 사용 중인 보완대체의사소통 방법

2019학년도 중학교 3학년 1반에서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그림상징과 몸짓상징 ‘손담’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오늘 수업에서 사용하는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

장소	경험한 것 표현하기	
	그림상징	몸짓상징
 올림픽공원		 기차/지하철(전철)
 꽃시장		 꽃

• 일상 경험 말하기 활동

그림상징	몸짓상징
꽃시장(4/15) 올림픽공원(6/10)  꽃시장(4/15) 올림픽공원(6/10) 꽃시장: 꽃을 팔고 있다, 꽃을 사고 있다, 꽃을 주었다, 꽃을 받았다, 꽃을 선물했다, 꽃을 받았다. 올림픽공원: 놀고 있다, 놀고 있다, 놀고 있다, 놀고 있다, 놀고 있다, 놀고 있다.	※ 품사별로 색깔 단서를 주었습니다. ● 명사 ● 부사 ● 동사 ● 형용사(감정) ① '손담' QR 코드 1. '유튜브' YouTube 에서 손담(몸짓상징) 영상 확인하기 ☐  친구, 기차, 좀 더, 티다, 끝다, 좋다 ※ 요표시는 품사 표시를 꼭 확인하십시오. ② 의사소통판  ③ 가정 연계 활동지 

• 부모님께 드리는 부탁의 말씀

오늘 수업에서 진행되는 의사소통 지도 방법에 대해 아이디어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알림장을 통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학기에도 학생들의 의사소통 지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추후에 가정에서 학생들과 자주 쓰는 언어 표현이나 배우기를 원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때 협조 부탁드립니다.

• 어휘 목록 작성

학기 초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의 환경에 따라 가장 필요한 어휘를 선정하여 개별화 교육계획 목표로 제시하도록 한다. 선정된 어휘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지고 지도한다.

개인별 어휘목록

개별 학생의 수준과 환경, 지역사회 참여와 지원 관계망에 따라 요구되는 어휘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통적인 필수어휘를 선정하는 것은 일방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예시: 예쁘다, 오빠, 간식, 지하철, 버스, 밖으로
가요 등

학급별 어휘목록

날짜	종교-1	날짜	종교-1
10월 1주	● 슬다/울리다 ● 화나다/기분 나쁘다 ● 그만하다(멈추다) ● 잠깐만/다들 ● 가만/가방을 메다 ● 책/책을 펴다	11월 1주	● 읽다/읽자 ● 읽는다/당했다 ● 읽어라/읽히다 ● 다시
10월 2주	● 루시다 ● 울다/슬프다 ● 화난하다/슬다 ● 신발	11월 2주	● 나쁘다(나쁜주다) ● 빠르다/빨리 ● 느리다/원형하 ● 누가/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10월 3주	● 먹다/식사/먹식 ● 간단 ● 나쁘다 ● 컴퓨터/컴퓨터를 하 다	11월 3주	● 피눈/경다 ● 웃음/웃기 싫하다 ● 지각 ● 자다/들리다/놓다
10월 4주	● 말하다 ● 조용히 하다(조용히) ● 보다 ● 듣다/노래, 음악을 듣다	11월 4주	● 수건/수건으로 닦다 ● 걸레/걸레로 닦다 ● 리다/릴/라 ● 리다
10월 5주	● 마시다/음마르다/물 ● 마시라/마시다 ● 듣다 ● 듣 더	12월 1주	● 들을 열다 ● 들을 닫다 ● 노래/노래하다/음악 ● 들/들었다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적용

학기 초 상담 내용 및 학생의 흥미와 능력을 반영하여 손담을 활용한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한다.

사회 교과 지도 목표의 예

학기 목표	월별 목표	교육 내용
기분과 상황에 어울리는 감정 그림 상징을 선택하여 의사 표현할 수 있다.	기분을 표현하는 말을 몸짓상징으로 표현할 때, 해당 감정 그림상징을 선택할 수 있다.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내 기분과 관련된 감정 표현을 알려주기
이번 주 나의 당번 역할을 확인하고 '나의 학교생활기록장'에 수행 결과를 자기 점검하여 기록할 수 있다.	몸짓상징 동작을 보고 해당 당번 역할 그림을 선택할 수 있다.	당번 역할 그림과 몸짓상징을 활용하여 당번 역할 이해하기

그림상징	몸짓상징	그림상징	몸짓상징
기분 좋다		울다/슬프다	
화나다/기분 나쁘다		졸리다	
청소하다		기분 좋다	

• 가정과의 연계 지도

중도지적·자폐성장애학생들에게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을 지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한걸음씩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더구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의사소통 지도를 위한 학부모 소모임 또는 학교와의 협력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 매주 손담 지도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서로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도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간에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를 꾀하면 학생들이 쉽게 지치고 포기하기 쉽다. 장기적인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의사를 몸짓상징 손담으로 표현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5) 가정과 학교에서의 실제 손담 적용 사례

가정에서 손담을 적용한 사례 (서울 소재 00특수학교 중학교 2학년 학생)

부적절한 방법(무의미하고 반복적인 소리로 시끄럽게 계속 소리 지르기, 도전 행동)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학생에게 손담을 적용함.

- 손담으로 기본적인 의사를 표현하면서 자신의 요구가 충족되고, 이로 인해 소리 지르기와 도전 행동이 현저히 줄어들음.
- 손담과 함께 선호하는 것에 대한 그림상징(캐릭터, 음식, 장소 등)을 병행하여 사용 했더니 선택적 상황에서 자신의 선호도와 의사를 표현함.
- 손담 어휘가 너무 많아 단기 목표로 자주 사용하고 꼭 필요한 표현 몇 개를 정한 뒤 실제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쳤더니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동작을 모방하여 적절하게 사용함.
- 습득한 손담 표현을 비슷한 상황이나 유사 어휘로 응용하여 표현함.
- 손담을 통해 기본적인 요구 표현이 아닌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면서 상대방과의 대화 시도를 함.

학교차원에서 손담을 적용한 사례 (경기도 소재 00특수학교)

학교 전체 구성원(교사, 학생, 보조인력 등)들의 손담 표현 이해 및 사용의 습관화를 위해 전체 조회 시간을 활용하여 매주 손담 표현 3개씩 교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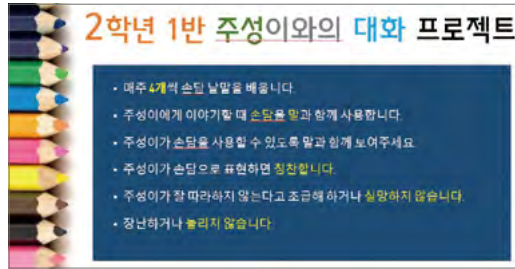
- 전체 학교 분위기와 환경 조성을 위해 교실, 현관 및 복도, 식당, 화장실 등 학교 구석구석 다양한 장소에 손담 포스터 및 주 단위 어휘 게시
- 전체 교육 후 학급별 교육을 통해 상황 중심의 구체적인 손담 표현 지도
- 구어 및 손담 표현이 수월한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서 학생들 간의 모델링 효과
- 전체 교육으로 충분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개별지원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손담 지도 방법 개발 및 공유
- 학교-가정 간의 손담 활용에 대한 합의와 협조를 위해 '손담 소식지' 발행
- 학년 말 손담을 활용한 '손담 자기표현 대회' 개최



통합학급에서
손담을 적용한 사례
(서울소재 00초등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에 '손담'을 소개하고 매주 4개씩 손담 어휘를 익히도록 지도함.

-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를 바라보는 다양한 사회적 시작행동을 하게 됨.
- 구어로 의사소통이 힘든 말 못하는 친구를 이해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시도하게 됨.
- 학교생활 시 상호작용에 필요한 어휘를 손담을 통해 놀이하듯이 익히게 되고, 친구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의 방식을 알고 즐겁게 사용함.



4. 새로운 시작 앞에서

중도지적·자폐성장장애학생의 의사소통에 손담을 활용하여 적용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인 손담 사용은 의사소통 의도를 비롯하여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지시 사항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언어 측면에서 간단한 손담 표현이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위험을 인식시키고 금지 행동이나 대피 행동을 이해시키는 데 매우 적절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규칙 등을 시각적 카드와 함께 손담으로 표현하며 지도했을 때 규칙을 이해하고 지키려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둘째, 의사 표현의 자발성을 향상시키고 활동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다.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고 표현된 요구가 수용되는 경험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려는 동기가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사회적으로 수용되기에 적절치 못한 의사 표현 방식을 손담으로 바꾸어 표현하게 함으로써 공격 행동이나 자해 행동 같은 도전 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넷째, 손담을 통하여 의사소통 지도를 위한 학교와 가정과의 보다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가능하였고, 기존의 사진이나 상징 자료에 비해 손담을 활용할 때 의사소통 대상자 간의 감정적인 상호 교류가 향상되어 의사소통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다섯째, 손담은 특별한 도구나 부가적인 자료가 필요 없이 자신의 손과 몸동작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즉시성과 신속성이 뛰어나서 다른 보완대체의사소통에 비해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잘 되었고, 비교적 가르치기가 수월하였다. 또한 기존의 사진이나 상징 자료에 비해 손담을 활용할 때 동사 어휘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손담 활용에 대한 이점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개별 학생 및 학부모의 손담의 선호도와 반응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손담 표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손담의 적용 방식은 개별 학생의 특성, 처한 환경과 상황, 필요와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이미 습득한 몸짓상징 표현이 있다면 이러한 표현들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새롭게 추가되는 손담 표현들을 학습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VI. 지체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손담 활용 방법

찬이는 요즘 기분이 좋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소변이 마려워 도와 달라고 할 때 예전에는 얼굴을 찡그리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을 알린 후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리기 위해서 “배고파?”, “배 아파?”, “목 말라?”, “물 마실래?” 이렇게 스무고개를 하는 것처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눈짓이나 손짓으로 열심히 표현해도 겨우 원하는 것을 알릴 수 있을까 말까 했기 때문이다.

찬이는 요즘 수다쟁이가 되었다. 학교에 와서 선생님에게 손담으로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어제 아빠랑 목욕탕에 가서 목욕했구나!”하며 금방 알아듣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부 시간에 활동 순서를 정할 때 “제가 기다릴게요. 현이 먼저 시켜 주세요”라고 표현하면 선생님께 칭찬도 받는다. 하지만 찬이는 가끔 어른들이 자기가 표현하는 것을 잘 모르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아직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는 것이 많아 답답하다. 어제는 휠체어 브레이크를 잠그고 싶었는데 도와 달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못 알아보아서 속상했다. 찬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손담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찬이 주변 사람들이 찬이가 표현하는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지체중복장애학생이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고,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을 해도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방안으로 개발된 손담을 지체중복장애학생이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활용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지체중복장애학생의 의사소통과 몸짓상징 손담

1) 지체중복장애학생의 의사소통 특성

사람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여 상대방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말이나 글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만큼 표정이나 몸짓 등과 같은 신체적 움직임으로 전달되는 의미는 가시적이며 중요한 기능을 한다. 특히 말이나 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지체장애학생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몸짓이나 신호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상징적 의사소통은 몸짓, 눈짓, 얼굴 표정, 소리내기, 문제 행동, 과거 일상생활 재연, 반향어 등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한다(박경옥, 2011).

이러한 비상징적 의사소통 행동을 보이는 지체장애학생의 주변 대화 상대자들은 이러한 고유 의사소통 행동을 이해하고 민감하게 반응해 줄 때 비상징적인 수준이지만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 학생들이 보이는 미세한 얼굴 표정의 변화와 신체 움직임에 대해 교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의사소통 형태로 수용하고 이를 의사소통의 중요한 단서로 인지하여 향후 많은 대화 상대자들에게 이것의 의미를 알려 소통의 채널로 활용할 수 있다(박경옥, 2011).

반다이크 사정을 활용한 중도뇌성마비 아동의 의사소통 특성 연구에서 중도뇌성마비 아동은 얼굴표정, 발성, 시선 응시, 손이나 팔의 움직임, 발성, 머리의 움직임, 고개 돌리기, 손 뻗기, 밀기, 고개 끄덕이기, 손들기, 당기기, 잡기, 가리키기, 손 흔들기와 같은 의사소통 양식을 사용하며 의미를 가진 의사소통 양식을 최소 한 가지 이상 사용하여 긍정이나 부정의 표현, 요구하기를 표현한다고 하였다(송만호, 2016).

2) 지체중복장애학생과 몸짓상징 손담

지체중복장애학생은 근육 및 관절의 구축, 제한된 운동 범위로 인해 얼굴 표정, 소근육 운동 조절과 적절한 자세 유지 및 신체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 같은 신체 표현을 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피로감을 유발한다. 지체중복장애학생은 구축으로 인해 운동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양손의 협응 및 양손을 신체의 정중선 가운데로 모으는 동작 등이 어려우므로 손과 팔의 가동 범위를 고려하여 표현할 수 있는 범위와 형태를 수정해야 한다.

지체중복장애학생은 자세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확한 표현이 어렵다. 신체의 한 부분을 이용하여 몸짓상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학생이 표현을 하더라도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좋지 않은 자세는 팔과 몸통의 안정감을 방해하여 몸짓상징의 표현을 방해하게 된다. 학생들이 자신의 팔과 손을 최대한 통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체중복장애학생은 개별 학생마다 각기 다른 표현 방법, 이미 고착된 의사소통 패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마다 사용하는 고착된 패턴을 하나의 몸짓상징으로 정형화하는 것이 어렵다.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몸짓상징 표현을 지도하더라도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이해하고 함께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지체중복장애학생에게 손담을 지도할 때 학생이 표현하고자 하는 시각적인 신호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교사의 민감성이 요구된다. 의사소통의 주요 실패 원인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시도에 대해 대화 상대들이 지나치게 모르거나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의 민감함은 학생의 본능적이고 비의도적인 의사소통 행동을 의도적인 의사소통 행동으로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의사소통의 시도를 강화하여 의사소통 체계로 만들 수 있다. 목소리, 눈짓, 작은 몸짓, 표정 등 몸으로 나타내는 미세한 표현이라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서 의사소통 지도가 시작된다. 학생의 표현이 미미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의도성을 지도한다.

근긴장도가 높거나 근지구력이 약한 학생의 경우에는 편안한 자세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자세유지용 보조 기기를 사용하여 바르게 앉도록 지도한다.

지체장애학생은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몸짓상징 손담의 표현은 학생의 수행 수준에 따라 표현 가능한 방식으로 수정하여 지도할 수 있다. 한 가지 유형과 형태로 제한하지 말고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같이 사용하도록 한다. 표현의 정확도를 추구하기보다는 표현하는 손의 모양과 위치, 손의 움직임, 손 또는 손바닥 방향의 움직임, 움직이는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미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몸짓상징 손담 표현 방법을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신체적인 제약을 보이는 영역이나 정도가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편마비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신체 영역이 제한적이어서 한쪽 손이나 발을 사용하게 된다. 학생들마다 불편한 신체 부위나 영역이 달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하므로 수정하여 지도한다. 손의 사용이 자유롭게 않은 경우에는 맥락에 맞게 한 손만 들어 올리도록 하거나, 손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의 동작만이라도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몸짓상징 손담의 사용 목적은 주 양육자 이외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의 범위와 영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이미 학생이 습득한 관습적 표현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되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연령에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지도한다.

몸짓상징 의사소통 방법과 기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한 표현, 더 효율적인 형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일반화된 의사소통 방법으로 유도한다. 구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몸짓상징과 함께 구어 표현을 함께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의사 표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도 입 모양이나 발성 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휠체어나 특수 제작된 의자 및 보조기기 등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우며 표현 하더라도 상대방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몸짓으로 표현한 것을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도록 휠체어용 책상 위에서 표현하거나 신체의 한 부분이나 한 손이라도 이용하여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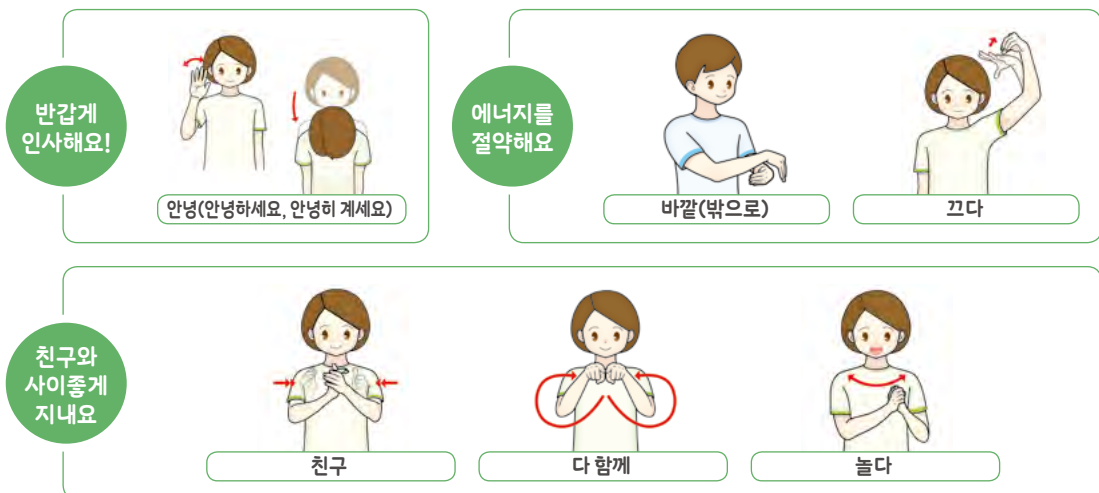
2. 지체중복장애학생의 손담 지도

1) 의사소통을 위한 환경 구성

교실이나 집안에 학생이 의사소통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배열하고 구성하여 학생의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먼저 몸짓상징 손담 포스터를 눈에 띄는 곳에 붙여 놓으면 학생과 교사, 가족 모두가 몸짓상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잊지 않고 상기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몸짓상징 손담 포스터를 보고 바른 표현을 즉각적으로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다.

책상 위에 의사소통판을 붙여 주어서 몸짓상징을 표현하기 어려운 것은 의사소통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손담 카드로 학급의 약속이나 화장실 이용 방법이나 양치질하기와 같은 일상생활 교육 활동의 순서도를 만들어 붙여 활용할 수 있다.



[그림 VI-1] 학급 약속



[그림 VI-2] 화장실 이용 방법 - 대변보는 순서

2) 손담 표현의 지도 방법

가. 개별화 교육회의, 부모 상담

학급 차원의 몸짓상징 손담 지도와 개별 학생에 대한 몸짓상징 손담 지도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안내를 한다.

학급 차원에서는 함께 어떤 시간에 어떻게 교육에 몸짓상징 손담이 활용되는지 설명한다. 예를 들어 조회 시간에 날짜와 날씨, 감정 이야기하기, 주요 일정 설명을 할 때,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안전교육에서 주요 행동 요령 표현하기 등에 몸짓상징 손담을 활용할 때 구호와 함께 활용할 것임을 안내할 수 있다.

개별 학생 지도에 대하여 의사소통 수단으로 몸짓상징 「손담」을 지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장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학부모의 요구나 협조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나. 어휘 선정 방법

학생에게 손담 표현을 지도하기 위해 어휘 선정을 해야 한다. 각 개별 학생마다 우선순위의 어휘가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와의 면담 및 설문지로 어휘를 수집할 수도 있고, 학생의 일과를 관찰하여 우선 지도해야 하는 어휘를 선정할 수도 있다. 몸짓상징 「손담」은 개발 단계부터 각 장애영역 특성을 반영한 어휘를 만들었다.

지체중도중복장애학생의 장애 특성을 반영한 어휘로는 ‘휠체어/유모차’, ‘의사소통기기/테블릿 pc’, ‘서다(일어서다)/스탠더(기립훈련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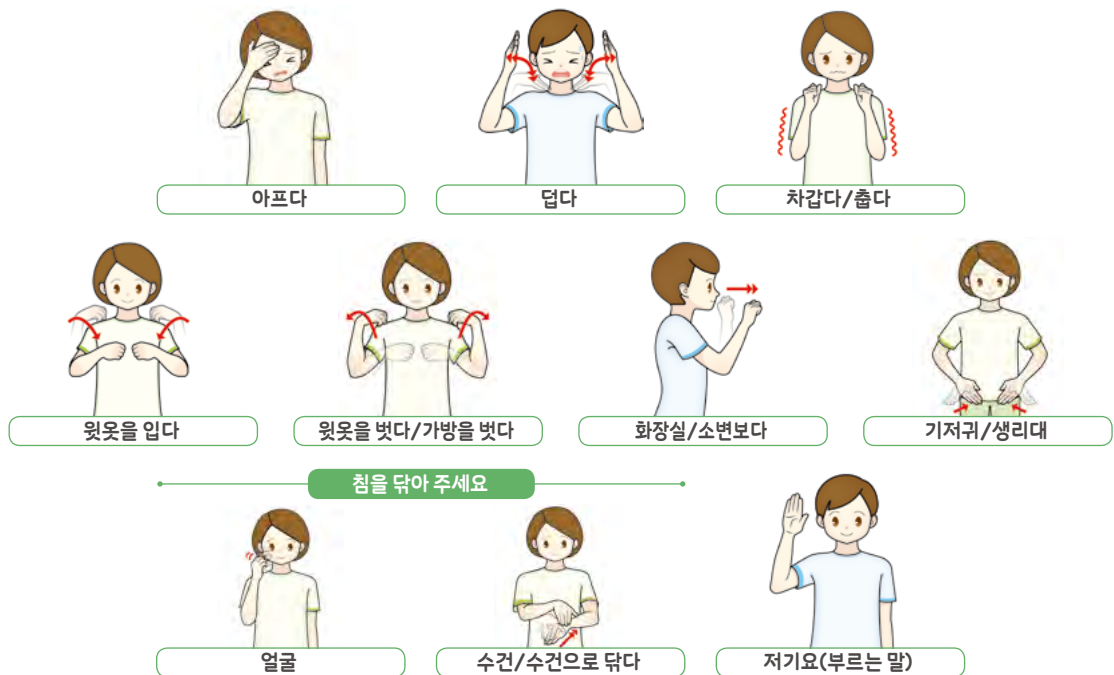


지체중복장애학생들은 스스로 자세를 바꾸기 어려우므로 불편함을 표현하고 원하는 자세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어휘는 다음과 같다.



또한 불편한 것 중에 아픔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생이 ‘아프다’는 표현을 하면 교사나 부모가 어디가 아픈지 구체적인 부위를 물어보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학생이 자신이 아픈 곳을 가리키도록 하며, 가리키기 어렵다면 ‘머리’, ‘몸통’, ‘팔’, ‘다리’인지 물어보고 만약 ‘머리’가 아프다면 두통으로 머리가 아픈지, 눈이나 코, 입과 같이 머리 부위에 있는 다른 곳이 아픈지 구체적인 부위를 찾아갈 수 있다.

지체중복장애학생은 스스로 움직이기 어렵고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는 경우 체온조절이 잘 안되므로 추위와 더위에 민감하다. 따라서 ‘춥다’, ‘덥다’ 표현과 함께 ‘옷을 입혀 주세요’, ‘옷을 벗겨 주세요’의 요구를 표현하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변처리도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장실’, ‘기저귀/생리대’, ‘침을 닦다’와 같은 어휘도 학생이 꼭 표현해야 할 어휘일 것이다.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저기요’와 같이 다른 사람을 부르는 몸짓상징을 음성과 함께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손담 표현 지도 방법

학생이 손담을 익혀서 상황에 알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실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매일의 규칙적인 일과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휘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고 반응하도록 한다.

학생이 교사나 보호자의 시범을 보고 따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교사나 보호자는 학생의 손과 팔 등을 잡고 몸짓상징 「손담」 표현을 만들어 주며 경험을 제공한다. 신체적 촉진은 점차 소거하여 학생 스스로 손담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이때 교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학생이 의미와 몸짓을 이해하더라도 장애 특성으로 인해 동작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수정 방법을 마련하여 학생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생이 경직형 마비가 있거나 불수의 운동으로 인해 동작을 수행하고 유지하기 어려워 의사소통 대상이 알아차리지 못하면 실패 경험이 누적되어 의사소통 의도가 줄어들게 되므로 학생이 의사소통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몸짓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교사는 자료집에 제시된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수정된 표현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 표현도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학생이 할 수 있는 동작이나 자세, 표정, 발성 등 개별 학생이 잘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지체중도중복장애학생 중에는 팔을 정중앙으로 모으기 어려운 학생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몸짓을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몸짓상징 「손담」 카드를 활용하여 시선응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학생이 표현하고자 하는 손담 카드를 좌우로 제시하여 학생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때 학생이 선호하는 방향에 따라 선택이 좌우되지 않도록 자료 제시 방향에 유의한다. 제시하는 카드를 1개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려 나갈 수 있다.

몸짓상징 「손담」 표현으로 구체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소통 책이나 AAC기기를 활용하여 학생이 능동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VI-3] 몸짓상징 「손담」 카드를 활용한 시선응시 방법의 예

라. 시각중복지체장애학생의 적용방법

시각중복지체장애학생이나 대뇌피질시각장애(CVI)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각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장애학생을 위한 몸짓상징 「손담」의 수정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

- (1) 학생이 몸짓상징 표현 동작을 학습함에 거부감을 줄이도록 동작의 큰 오류를 수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손 아래 손’의 방법으로 학생이 교사의 손 위에 손을 얹어 자유롭고 능동적인 상황에서 동작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 (2) 학생이 교사와 함께 몸짓상징을 익히는 과정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지면 학생의 표현을 보다 정확하고 정교하게 수정하기 위해 교사가 학생의 손이나 손목을 잡고 동작의 모양이나 방향을 안내하는 ‘손 위 손’ 방법을 활용해도 좋다.
- (3) 학생의 손 위에 상대방이 손을 올리고 손담 표현을 하며 대화상대가 그 움직임을 느끼게 해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활용한다.
- (4) 촉각단서와 사물단서를 활용하여 동작을 학습한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에 지체장애학생이 컵을 표현하려 시도할 때, 실제 컵을 학생의 손에 쥐어 주며 ‘컵’이라고 반복하여 말해주며 컵의 모양을 살펴보고 손담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5) 학생의 손을 잡고 몸짓상징의 손 표현을 만들어 학생이 바르게 표현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몸짓상징 표현을 학습할 때는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몸짓상징 표현이 방해받지 않도록 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손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그림 VI-4] ‘손 아래 손’ 전략

교사가 신발을 표현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생이 교사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어 교사의 손 모양을 탐색하고 모방함.



[그림 VI-5] ‘손 위 손’ 전략

교사가 학생의 손목을 잡고 앞뒤로 학생의 팔을 움직이며 기차 표현의 동작의 모양과 방향을 안내하고 있음.

마. 손담의 융통성 있는 활용

한 가지 어휘에 대한 표현은 다른 품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쁘다’는 ‘예쁜’, ‘예쁘게’, ‘예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몸짓상징 사용 초기 단계에서는 의미 전달에 가장 중요한 어휘 한 개만 표현하다가 점차 여러 어휘를 연결하거나 응용하여 표현의 범위를 확장해 간다. 예를 들면 개발된 표현 중에서 ‘식당’은 ‘먹다+장소’로 표현한 점을 응용하여 개발되지 않은 표현 ‘내 방’은 ‘나’+‘장소’로 표현할 수 있다.

바. AAC기기와 연계 활용

몸짓상징 「손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강직이 심한 학생은 ‘시선응시’ 방법이나 의사소통판, 의사소통 도구와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몸짓상징 「손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구체적인 내용에서 손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휘가 있을 경우에는 의사소통판이나 앱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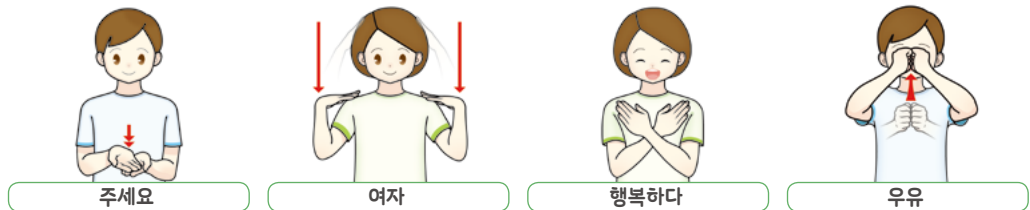
[그림 VI-6] ‘아프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판

3) 손담의 수정 적용 방법

지체장애학생의 신체적 제한으로 인하여 「손담」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정할 수 있다. 수정하여 사용할 때 활용 tip은 다음과 같다.

가. 두 손을 사용한 표현은 한 손으로 표현해도 돼요.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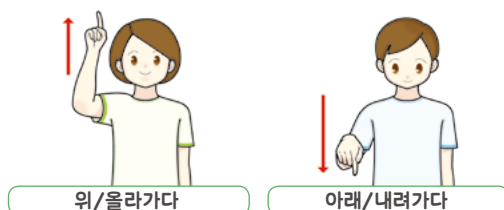
나. 움직이는 동작이 포함된 표현은 정지 동작으로 표현해도 돼요.

예)



다. 손가락을 이용한 표현은 다른 손가락이나 주먹, 또는 손을 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예)



라. 엄지를 이용한 표현은 검지 등 표현 가능한 손가락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좋다'를 표현할 때 엄지를 세우는 것이 어렵다면 검지를 세우기



좋다/잘하다

마. 곡선으로 표현하는 동작은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



하늘



버스



자동차

바. 기준선을 이용하여 공간을 구분하는 표현은 자기 몸을 기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안/밖 - 자기 몸을 기준으로 하여 한 손으로 안과 밖을 표현할 수 있음.



안(안으로)



바깥(밖으로)



사. 도구 사용을 모방한 동작을 하기 어렵다면 관련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수정할 수 있어요.

예) 양치질하다 - 이를 가리킴. 목말라요- 목을 가리킴.



마시다/목마르다/물



아. 허공에서 움직이는 동작은 책상 표면에 손이나 팔을 대고 표현하도록 수정할 수 있어요.

예)



그만하다



화장실/소변보다

자. 양손의 접촉이나 협응이 필요한 동작은 유사한 표현이나 한 손 표현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



4) 궁금해요 Q&A

Q. 동작을 따라 하지 않으려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는 바라보기만 하다가 상황과 몸짓이 연결되면 스스로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몸을 움직여 동작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교사가 언어적, 신체적 촉진을 해 주고 반복하여 실시합니다. 학생의 몸에 힘이 들어가며 스스로 동작을 만들려고 할 때 교사의 촉진을 점차 줄여갈 수 있습니다.

몸짓상징 손담은 수용언어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체장애학생은 움직이는 대상을 더 잘 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몸짓상징 손담은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쉽고 단순한 손 표현을 기본으로 뺏기, 당기기, 밀기, 가리키기, 상대방 쳐다보기와 같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움직임을 포함시켜 문화적으로 정의되거나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보편적 몸짓을 포함시켰습니다. 수용언어로서 손담은 지체중복장애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학생이 원래 사용하던 몸짓 표현이 있는데 손담으로 바꿔 줘야 할까요?

학생이 자신의 요구 사항이나 감정 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던 몸짓 표현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표현이 부적절하거나 대화 상대방이 알기 어렵다면 손담도 가르쳐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근육의 긴장도가 높고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팔을 몸 뒤쪽으로 뺀어서 몸짓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사소통의 욕구는 강하지만 말로 표현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몸짓상징 손담도 보완대체의사소통 중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학생이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시선 응시나 스위치를 활용한 의사소통 앱 등의 방법을 활용할 때 손담의 상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학생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동작이 몇 가지밖에 안됩니다. 표현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학생이 할 수 있는 동작에 범주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의 정확한 의도를 물어보아 확인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먹을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손을 입에 갖다 대면 음식에 관련된 질문을 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장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장소를 뜻하는 '집'을 표현하면 학생이 일상적으로 가는 장소 예를 들면 집, 학교, 치료실, 병원 등인지 물어보아 정확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평소에 사용하는 의사소통판이나 의사소통 도구가 있다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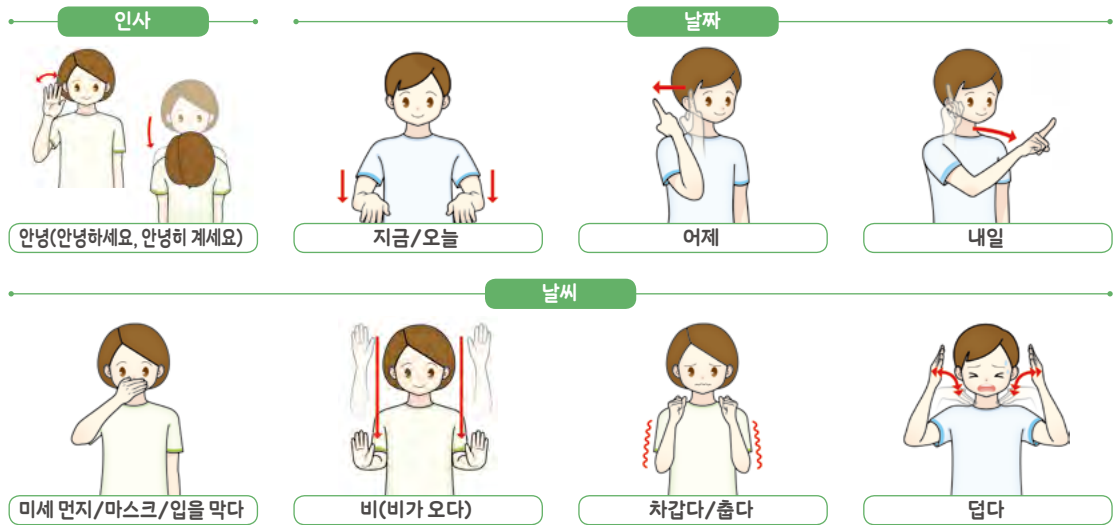
3. 손담을 활용한 의사소통 지도 사례

1) 손담으로 시작하는 하루 일과

학생이 등교하면 수업 시작 전에 인사로 시작한다. 교사가 먼저 모델링을 보이며 학생도 모방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늘의 날짜를 묻고 답하며 확장 활동으로 어제와 내일, 휴일 등을 표현해 보도록 한다. 또한 학생의 현재 감정을 묻고 답할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도전 행동을 예방할 수 있으며 건강하고 건전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월요일이나 공휴일 다음 날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묻고 답하는 주말 이야기를 하며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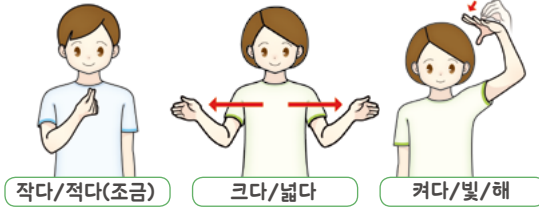
2) 교과 수업, 손담으로 이야기하기



수업은 교사와 학생과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이다. 주요 상호작용의 내용이 교과 학습의 학습 목표와 관련된 것이 일상 대화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참여하기 위하여 교사가 지도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교사의 질문에 대답할 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최소한 각 단원의 핵심 어휘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학 시간에 ‘비교하기’ 단원을 가르칠 때 핵심 어휘는 ‘작다’, ‘크다’, ‘많다’, ‘적다’, ‘길다’, ‘짧다’, ‘무겁다’, ‘가볍다’ 등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의 특징을 비교하는 어휘이다. 이러한 핵심 어휘는 단원을 학습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교사가 이야기하고 학생들은 표현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배우는 시간이나 횟수보다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수학 4. 비교하기



초등학교 3학년 과학 4. 빛과 그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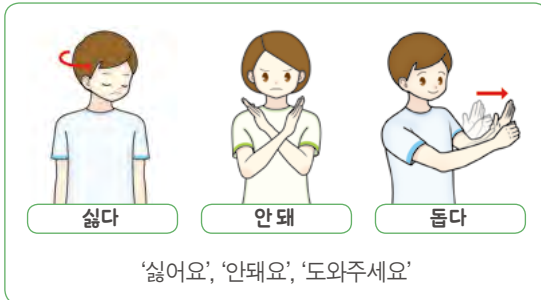
다양한 활동을 하는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에 몸짓상징 손담을 활용할 수 있다.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의 시간에 몸짓상징 손담으로 폭력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말이나 발성과 함께 몸짓으로 표현하도록 할 수 있다. 몸짓상징 손담으로 표현하면 비구어 학생들도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학생도 몸짓을 함께 하며 적절한 행동을 연습할 수 있다.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전에는 현장체험학습 시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을 몸짓상징 손담으로 표현해 볼 수 있고,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와서 사진을 보며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때의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며 동아리 주제에 알맞은 몸짓상징 손담을 활용한 활동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책 읽고 활동하는 동아리라면 그림책의 일부를 몸짓상징 손담을 활용하여 연극을 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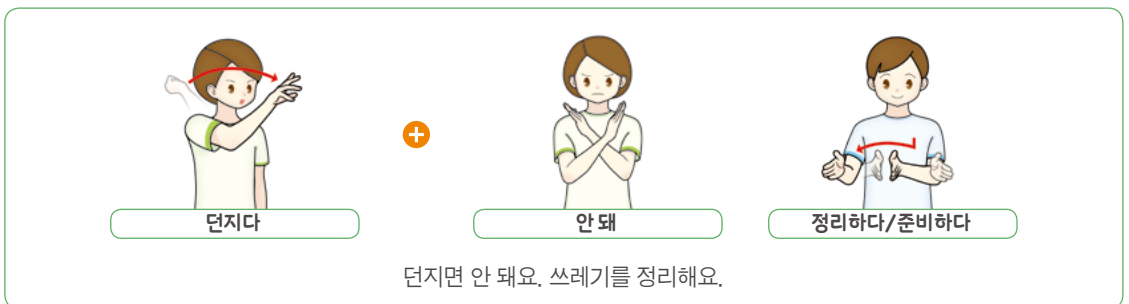
폭력 예방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어휘



화재 대피 훈련 시 활용할 수 있는 어휘



현장학습 전에 유의 사항을 확인해요



체험학습 준비물



가방/가방을 메다



과자



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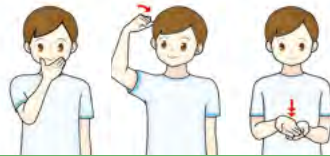
마시다/목마르다/물

가방에 간식이랑 밥, 물을 가지고 오세요.

「아빠 달님을 따 주세요」 그림책으로 역할극하기

모니카

아빠
달님 주세요.



아빠

모니카야.
달 줄게.
이거 받아.



3) 정보 나누기

몸짓상징 손담을 학생에게 가르친 후 학생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지체장애학생은 수정된 표현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생이 표현했을 때 대화 상대자가 이해하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 그 표현을 언제 사용하는지 알려 주어야 한다. 다음은 손담을 배우고 활용하는 학생의 가정과 진급할 학년의 담임에게 제공한 양식의 예이다.

개인별 몸짓 어휘사전

이름	0영0	학년반	초2-2
장애명	뇌병변(편마비)	중복장애명	-
운동능력 특징	편마비로 왼손 사용은 잘 하나 오른손은 제한적임. 양손을 사용하는 동작은 잘 안하려고 함.		
의사소통 특징	발화 어려움. 몸짓과 함께 밀성을 활용함. 그림의사소통 판이나 앱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며 쉬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낱말을 읽음. 몸짓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좋아함.		

어휘	표현 방법			사용 맥락
	손담	손담 대체몸짓	대체 몸짓	
우유	✓			스스로 요구를 표현함
물	✓			
밥			입술을 부딪히며 소리냄	
빵		왼손바닥에 오른손 주먹을 올림		
멜대	✓			우유 등 음료수를 마실 때
시간표/스케줄	✓			등교 직후 하루일과를 물어봄
안경			눈을 손으로 가리킴	안경을 안가져왔거나 요구할 때
가방		가방을 가리킴		준비를 등 표현할 때
기다리다	✓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싶지만 스스로 기다린다는 의미 포함

개인별 몸짓 어휘사전

이름	정·찬	학년반	초6-2
장애명	뇌병변	중복장애명	-
운동능력 특징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펴거나 굽힌 상태로 발을 무릎 높이까지 들어 올릴 수 있음. 어깨 돌리기, 팔꿈치 굽히기, 주먹 쥐었다 펴기를 할 수 있음. 2가지 이상의 신체 동작을 동시에 하기 어려움.		
의사소통 특징	'네, 으마, 아빠'를 말함. 질문에 발성의 길이를 달리 하거나 의사소통 판에서 적절한 그림낱말상징을 짚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음.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빠르게 파악하면 즐거워 함.		

어휘	표현 방법			사용 맥락
	손담	손담 대체몸짓	대체 몸짓	
우유, 물		'물/마시다/목마르다'의 기본형으로 표현함.		스스로 요구를 표현함
그만하다		손날로 책상을 킁		요구사항이 있는지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따라서 대답함
신발, 양말(을 벗다)			(신발/양말을 신은) 발을 가리킴	
윗옷을 벗다		한 손을 어깨에 댔다가 바깥으로 펼침		
덮다		한 손으로 표현		
나			주먹을 쥐고 가슴에 대거나 한 손을 들	수업 중 발표하고 싶을 때 표현함
놀다			(개인적인 표현을 활용) 양 손을 번갈아 붙여 댐	과격하게 놀고 싶을 때 표현함. 양손을 잡고 마구 흔들어주면 좋아함.
아프다	V			

**이의 몸짓상징

(유튜브에서 '손담'을 검색하면 더 많은 어휘의 영상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어휘	표현 방법		사용 맥락
	손담	대체몸짓	
아프다		주먹을 이마에 가져다 댄	기침, 가래가 평소보다 심한 날 아프지 물어볼 때 사용함
집		 두 손끝을 모아 책상 위에 올림	주말이야기 나눌 때 사용
끄다		한 손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주먹을 집	1인 1역할로 불을 꺼야할 때 스위치에 손이 안 닿고 급히 이동할 때 몸짓상징으로 대체함
우유, 물		주먹을 입에 가까이 가져감	스스로 요구를 표현함

4. 새로운 시작 앞에서

지체장애학생에게 몸짓상징은 가르치고자 하는 의사소통 수단을 고려할 때 선뜻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지체장애학생이 원래 가지고 있던 비구어 의사소통 수단 중의 하나가 몸짓이므로 몸짓상징 손담으로 학생의 표현을 정교화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AAC와 발성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학생의 장애 특성으로 인해 손담을 미리 제한시키지 않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지체장애학생의 몸짓 표현은 불분명하며, 정확한 동작을 하고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학생이 몸짓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대화 상대자의 민감성이 중요하다. 학생이 의도한 바를 표현했을 때 적절하게 반응해 주면 학생은 몸짓과 의사소통 의도가 활발해진다. 그러므로 학생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몸짓상징 손담을 이해해 주고 표현해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교사와 부모가 먼저 몸짓상징 손담을 즐겁게 사용하면 학생은 그 모습을 보며 몸을 들썩이고 팔과 다리를 움직인다. 비구어 학생이 능동적 의사소통자가 되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몸짓상징 손담을 활용해 보자.

VII. 청각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손담 활용 방법

청각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있는 은이는 손가락의 섬세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엄마’, ‘아빠’를 수어로 표현하기 어렵다. 검지와 새끼손가락을 바꾸어서 펴는 동작의 변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함께 가진 진이는 시각적 자극에 민감하여 자주 사용되는 수어 10가지 정도를 이해하지만, 자발적인 표현에는 어려움이 있다. 수어를 단순히 모방하지만 종종 손바닥을 뒤집어서 표현하거나 상황과 관련 없는 특정 수어를 반복하기도 한다.

청각장애와 중도지적장애를 동반한 영이는 집중 시간이 짧아서 눈으로 보고 모방하는 학습에 어려움이 있고, 요구를 나타낼 때마다 괴성을 지르곤 한다.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교실을 돌아다녀서 수업에 방해가 되는 일도 종종 있다.

수어만으로는 의사소통 방법을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는 청각중복장애학생들에게 의사를 표현하고 교육이 가능한 의사소통 수단은 무엇일까?

1. 청각중복장애학생의 의사소통과 몸짓상징 손담

1) 청각중복장애학생의 의사소통 특성

청각장애학생들의 의사소통은 주로 구어 또는 수어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에 제시된 사례처럼, 청각중복장애학생들은 청각장애 이외에 부가된 장애 특성에 따라 구어 또는 수어만으로 의사소통을 발달시키기 어렵다. 지적장애나 자폐, 지체장애 등의 부가적 장애로 인해 조기에 보청기와 인공와우 등의 청각보장구를 착용하더라도 이후 청각적 재활과 언어교육이 어려워 구어 의사소통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수어의 추상성과 표현의 난이도 등으로 인해 수어 습득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수의 청각장애 특수학교가 교육적 필요에 따라 수어, 구어, 독화, 필담 등 학생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소통을 지도하는 종합적 의사소통(Total Communication)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주된 의사소통 수단은 학생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청각중복장애학생의 의사소통은 학생이 가진 부가적인 장애에 따라 정도가 다양하다.

조기에 청각장애를 발견하여 성공적으로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거나 청각적 손실의 정도가 경하여 듣기만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친숙한 지시를 듣고 따를 수 있고, ‘엄마’, ‘아빠’와 같이 익숙한 사람들의 호칭을 부르며, 말로 간단한 요구를 표현할 수 있다. 구어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하는 것을 가리키는 등의 몸짓이나 단순한 수어 표현을 사용하고, 그림 카드나 의사소통판 등의 보완대체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림 VII-1] 요구를 표현하는 의사소통 방법

학생의 의사소통 수준은 개인의 지각 및 인지능력, 운동기술에 따라 차이가 크다(정인호, 2009). 표현의 경우 가리키기를 통해 사물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친숙한 10개 내외의 생활 어휘를 수어나 말로 표현하는 등 학생마다 다양한 발달 정도와 양상을 보인다.

2) 청각중복장애학생의 손담 필요성

수어는 손과 몸의 움직임을 통해 나타내는 시각적인 언어이고, 자체의 고유한 어휘와 규칙성을 포함하여 언어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을 가진 시공간적 언어이다(고은, 2017; Scheetz, 2014). 또한 농인들의 문화와 관습 속에서 오랫동안 발달해 오면서 수많은 관용적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어를 사용하는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발달되어 왔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에 속한 청각중복장애학생들은 대부분 수용언어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수어에 노출되어 온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어의 자의성, 축약성 등과 같은 특징은 수어 이해를 어렵게 하는 추상적인 요소들로 나타나고, 손과 표정의 결합을 통해 완성되는 표현들은 복잡하고 섬세한 손 표현이 어려운 청각중복장애학생들에게 표현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그림 VII-2] 수어와 손담의 표현 비교

따라서 청각중복장애학생에게는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보다 보편적인 표현을 취하는 단순한 손과 몸짓 표현이 요구된다. 한국수어의 쉬운 표현들과 보편적인 몸짓을 취하여 개발된 손담은 청각중복장애학생에게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상징체계이며, 지속적으로 수어를 접하여 손 표현에 친숙한 학생들에게는 손담 적용을 위한 별도의 준비 없이 쉽게 수용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이다(국립특수교육원, 2018).

2. 청각중복장애학생의 손담 지도

1) 의사소통을 위한 준비 - 의사소통 환경 갖추기

청각중복장애학생들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시각적 학습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하기 전에 시각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첫째, 주변 소음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학생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말과 함께 표현한다.

둘째,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손담 어휘를 표현해 주고, 근처에 집중을 방해하는 사물이 없도록 환경을 마련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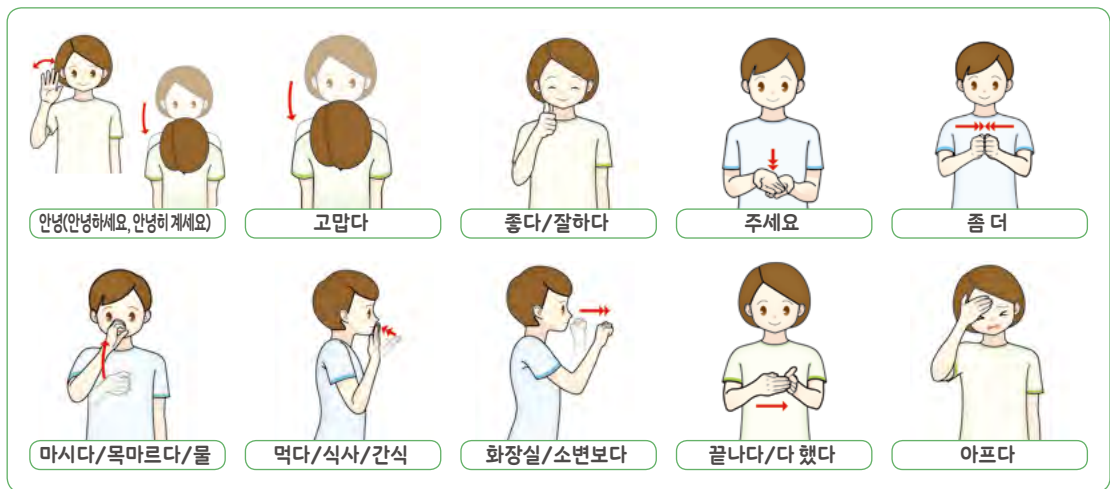
셋째, 대화가 끝날 때까지 학생에게 집중하여 경청한다.

2) 손담의 지도 방법

가. 어휘 선정 방법

청각중복장애학생에게 손담 표현을 지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손담 어휘를 선정하는 것이다. 손담 활용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어휘를 선정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반복하여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손담 표현을 목표 어휘로 정한다. 교사나 어머니가 동일한 상황에서 일관되게 반복하여 표현할 수 있는 손담 어휘를 우선 선정한다. 인사와 칭찬, 요구 상황의 표현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이 가장 고빈도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식사, 화장실, 활동 종료, 아플 때의 표현도 자주 사용된다. 손담 가이드북에 제시된 상황별 어휘들을 참고하여 자주 사용되는 어휘들을 선정한다.



[그림 VII-3] 일상생활에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손담 표현의 예

둘째, 학생들은 추상적인 개념의 어휘를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새로운 어휘를 소개하거나 어휘를 확장할 경우 실제 경험과 관련된 어휘부터 선정한다. 예를 들어, '수영하다'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배우는 경우, 수영장 현장학습을 다녀온 후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상을 함께 보며 경험과 어휘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림 VII-4] 경험 중심의 어휘 학습의 예

셋째,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위해서는 요구하기, 선택하기와 관련된 어휘들을 익힌 후 의사 표현과 선택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표현 기회를 주도록 한다. 대표적인 어휘에는 ‘예’, ‘아니요’와 ‘좋다(잘하다)’, ‘싫다’를 들 수 있다. 또한 같은 색 찾기나 같은 모양 찾기 등과 같이 일대일 대응을 통해 개념을 익히는 학습 상황에서는 ‘같다’와 ‘다르다’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VII-5] 요구, 선택을 위한 확장과 개념 학습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의 예

나. 손담 표현의 지도 방법

손담을 사용하더라도 청각중복장애학생은 어머니나 교사를 비롯한 대화 상대자가 보여 주는 손담 표현을 수용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손담으로 다정하게 말을 걸어 주고,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손담을 지도하도록 한다.

첫째,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에게는 기본적인 요구 사항과 관련된 손담 표현 한두 가지를 지도하고, 표현할 때마다 긍정적 강화를 제공하여 의사소통의 즐거움을 알게 해 준다.



[그림 VII-6] 손담 칭찬 표현들

둘째, 손담 표현은 같은 어휘라도 표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청각중복장애학생들은 표현의 정확한 의미보다 표정과 분위기를 통해 맥락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손담과 함께 어휘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그림 VII-7] 다양한 표정과 함께 표현되는 손담 표현들

셋째, 학생이 불명료하게 표현을 했다면 정확한 문장으로 되물어서 표현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후 정확하게 다시 표현하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학생이 ‘출다’를 ‘무섭다’로 잘못 나타낸 경우, 교사가 ‘추워?’라고 바른 손담 표현을 보여 주며 물어본 후 학생의 팔을 잡고 벌리는 신체적 촉진을 제공하여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다. 학생이 도움 없이 표현할 수 있게 되면 교사의 표현을 보고 스스로 모방하여 표현하도록 한다.



[그림 VII-8] 확인과 모방을 통한 손담 의사소통 촉진의 예

다. 도전 행동과 연계한 손담 지도

청각중복장애학생 중에는 자신의 기본적인 요구조차 표현하지 못해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많다. 그러나 학생의 도전적 행동은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하나의 언어이다. 이 요구를 수용 가능한 바람직한 표현으로 바꾸어 나타내도록 가르치고 연습시키면 학생의 도전적 행동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다음의 손담 표현들은 학생의 도전 행동을 긍정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도록 돕는 표현들의 예시이다. 도전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에는 ‘그만해요’, ‘아파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등이 있다.



[그림 VII-9] 도전 행동을 대체하는 손담 표현의 예

이 손담 어휘들을 지도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들을 고려한다.

첫째, 학생이 손담을 표현하기 어렵다면 관련된 그림 카드 선택으로 행동을 대체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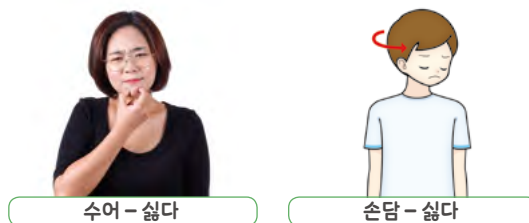
둘째, 학생이 손담 표현을 하는 즉시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여 표현 자체에 대한 강화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수어와 상이한 표현의 적용

청각중복장애학생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의사소통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과 손담을 결합하여 융통성 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익숙한 수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손담은 보편적인 몸짓과 쉬운 수어 표현들을 포함시켜 개발했으나, 중복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하여 표현이 어려운 일부 수어 어휘는 수정된 표현으로, 의미 전달이 어려운 추상적인 수어 표현은 새로운 표현으로 개발하였다. 이에 한국수어에 익숙한 학생들은 수어와 일부 손담의 표현이 상이하여 혼란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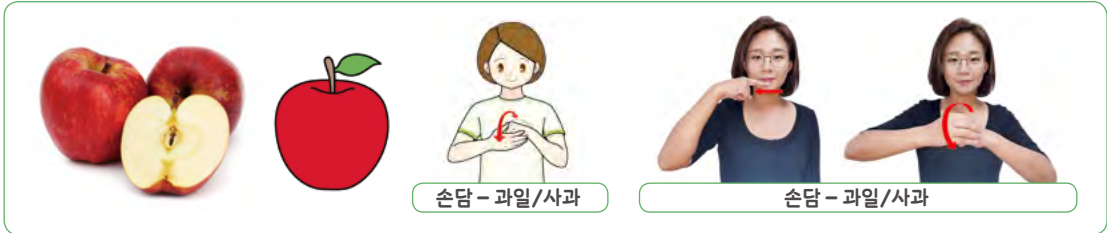
첫째, 청각중복장애학생들은 손담 표현과 수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두 가지 방식을 한 가지로 통일시키기보다는 의사소통 시도 자체를 격려하고, 학생에게 편한 의사소통 방식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또한, 학생에게 익숙한 수어 어휘는 수어로 표현하여 이해를 돕는다.



[그림 VII-10] 동일한 어휘의 수어와 손담 표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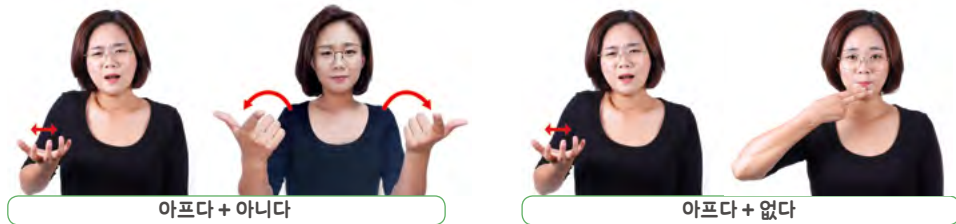
둘째, 수어뿐 아니라 평소에 사용하는 학생만의 몸짓상징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수용하고 격려해 준다. 손담 표현은 새로운 어휘를 소개할 때 자연스럽게 알려 줄 수 있다.

셋째, 학생이 사물, 사진, 그림, 어휘의 표현, 어휘 단어 등의 일대일 대응을 통해 같은 뜻을 가진 어휘를 다양한 표현으로 익히며 개념을 확장할 때에는 수어와 손담에서 표현하는 어휘가 같은 의미임을 이해시키면서 서서히 손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시한다.



[그림 VII-11] 다양한 형태의 상징물과 어휘 제시 및 일대일 대응을 통한 개념 확장

넷째, 학생이 한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할 때 그 문장을 수정해 주기보다는 의미가 통하는 문장이라면 그 표현을 인정해 주고 적절히 반응해 준다. 수어 어법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수어식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의 예로 ‘아프지 않다’를 ‘아프다’와 ‘없다’로 나타내는 것 등이 있다.



[그림 VII-12] 의미 소통을 위한 수어식 문장 구성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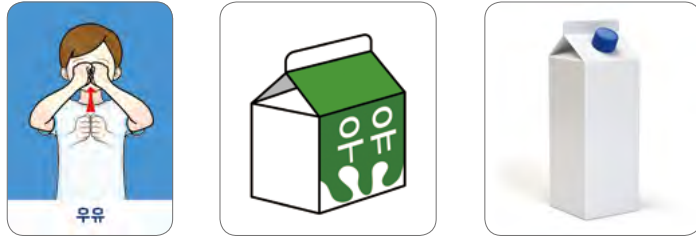
마. 융통성 있는 손담의 활용

학생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손담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관련된 그림 카드의 활용과 손담과 함께 문자를 제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 특히 교실이나 집 안 사물에 단어 카드와 손담 카드를 함께 붙여 두어 어휘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문자에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림 VII-13] 문자와 함께 제시된 손담 어휘의 예

또한 학생이 손담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면 관련된 그림 카드를 선택하는 것으로 대체 표현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그림 Ⅶ-14] 다양한 종류의 그림 카드의 예

3. 손담을 활용한 의사소통 지도 사례

1) 의사소통 상대자의 손담 시작

청각중복장애학생과 몸짓상징 손담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양육자, 교사, 보호자 등 의사소통 상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손담 표현을 먼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개발된 204개의 손담 표현 중 50% 이상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몸짓 표현이기는 하나, 손과 몸을 활용한 몸짓상징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손담과 같은 표현 방식은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관련된 손담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양육자, 교사, 보호자 등 의사소통 상대자가 손담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시작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평소에 자신이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떠올리는 것이다. 아이를 부를 때 ‘이리 와’라고 말하며 손을 까딱거리거나,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좌우로 내젓는 등의 제스처는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몸짓 상징들이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하는 제스처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세어 보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본 후, 그 중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두세 가지를 정하여 맥락에 맞게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손담을 손쉽게 시작하는 방법이다.

지영이의 담임교사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자신의 제스처를 점검해 본 결과 다섯 가지 이상의 몸짓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은 지영이의 담임교사가 사용한 제스처의 목록이다.

순	사용한 제스처	표현 상황의 예	손담 표현
1	손을 좌우로 흔들며 인사하기 	등교 시간에 학생들을 만났을 때, 하교 시간에 학생들과 헤어질 때	 안녕(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2	손을 까딱거리며 부르기 	이동하기 위해 학생들을 부를 때	 오다
3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여 내밀기 	학생의 행동을 잠시 멈추게 할 때, 잠깐 기다리라고 할 때	 잠깐만(잠깐 기다려, 이따가)/다음에
4	양 손바닥을 아래로 내리기 	학생들에게 앉으라고 할 때	 앉다/의자
5	양손을 허리에 대고 화난 얼굴을 하기 	학생에게 안 된다고 말할 때	 안 돼

〈표 VII-1〉 교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스처 목록

이 다섯 가지 표현 중 1~3번은 손담과 동일한 표현이고, 4~5번은 손담과 다른 표현이다. 교사는 하루 중 1~3번 표현을 사용하는 상황을 구조화하여 매일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손담 표현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4번 ‘앉다’라는 표현은 손담과 다른 표현이어도 이미 학생과 교사가 이 제스처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교사는 사용하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5번 ‘안 돼’의 표현은 울동의 준비 동작과 비슷하고, 급박한 순간에 학생의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손담의 ‘안 돼’ 표현이 보다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손담의 표현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이렇게 다섯 가지 표현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교사는 매주 새로운 손담 표현을 한 가지씩 추가하기로 하였고, 한 학기가 지나자 교사는 손담을 능숙하게 사용하게 되었다.

2) 가이드북을 활용한 손담 표현 선택

지영이의 어머니와 담임교사는 지영이에게 손담을 적용하여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매주 손담 표현을 한 가지씩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주의 손담 표현을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해 주기로 했으나, 지영이의 어머니는 손담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아이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잘 몰라 난감하였다.

지영이의 어머니의 어려움을 알게 된 담임교사는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황별 손담 표현을 중심으로 목표 어휘를 정하기로 하였고, 매주 새로운 어휘를 추가하기보다는 한 달 동안 어머니가 동일한 상황에서 손담을 반복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방법을 수정하였다.

다음은 청각장애학생용 손담 활용 가이드북에 제시된 가정생활 영역의 사례이다. 매일 세수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다음에 제시된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다. 어머니는 자연스러운 말 표현 중 주요 어휘만 손담을 함께 사용하면 되는데, 말과 표정과 손담을 동시에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황에 필요한 모든 어휘들을 손담으로 표현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머니가 손담에 익숙해짐에 따라 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손담의 수를 점차 늘리는 것이 좋다.


배워볼까요?



세수하다





수건/수건으로 닦다





얼굴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 신체를 나타내는 어휘와 함께 사용해요.

- 다른 곳을 씻을 때에는 신체 부분을 가리킨 후 '씻다'를 함께 표현해요.



얼굴





세수하다









비누/씻다

• 세면대 앞 거울에 손담 그림을 붙여 주세요. 세수하기, 손 씻기, 이 닦기 상황에서 반복하여 표현해 보세요.



세수하다



비누/씻다



수건/수건으로 닦다



칫솔/양치질하다



좋다/잘하다

• 씻기가 끝나면 '다 했다'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요. "세수 다 했다. 세수 끝!"



세수하다





끝나다/다 했다

[그림 Ⅶ-15] '세수하다'와 관련된 손담 기초 표현과 표현의 확장

※출처: 청각중복장애 손담 활용 가이드북

3) 수어와 함께 손담 사용

청각중복장애학생들에게 수어와 다른 손담 사용이 혼란을 주게 될까봐 우려하는 교사와 학부모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204개의 손담 표현 중 수어의 표현을 수정한 경우는 약 22%, 새로운 표현으로 개발된 경우는 약 19% 이고, 나머지 약 60%의 어휘들은 수어와 거의 동일하다(국립특수교육원, 2018). 수어와 손담의 차이로 인한 혼란은 개별 학생의 어휘 목록에 따라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학생이 수어를 능숙하게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손담보다는 수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수어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더 쉽게 수용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손담을 제시하되, 학생이 사용하는 특정 손담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다음은 수어로 ‘텔레비전’을 능숙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청각중복장애학생의 사례이다.

지영이는 텔레비전을 좋아하지만, 소근육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여 영어 알파벳 T와 V를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수어 ‘텔레비전’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반면 손담은 리모컨을 누르는 동작으로 텔레비전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 VII-16] 수어와 손담의 텔레비전 표현

지영이는 텔레비전을 가리키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의사를 표현했지만, 손담으로 ‘텔레비전’을 배운 이후 자리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텔레비전’ 손담 표현을 익힌 이후 지영이의 착색은 증가하였고, 소리를 지르는 행동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수어를 사용하는 지영이 반 친구들은 지영이의 텔레비전 표현이 틀렸다고 고쳐 주려고 하였다. 교사는 수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에게 손담을 소개해 주면서, 수어와 비슷한 표현도 있고 조금 다른 표현도 있다는 것을 안내하였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가 모두 다르듯 손으로 말하는 언어도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손담 표현이 틀린 수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영이의 또 다른 언어임을 알려 주었다.

지영이가 표현할 수 있는 손담은 그리 많지 않고 그 중 수어와 상이한 표현들은 손에 꼽기 때문에 수어와 손담의 차이에 의한 혼란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그보다는 소통이 이루어지며 얻게 된 장점이 더 많았다. 청각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손담 활용 가이드북에는 각 주제별 사례와 관련된 수어 표현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수어에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수어로 표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표현 방식의 선택은 학생의 개별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밖에 가정과 함께하는 손담 지도와 손담을 활용한 노래와 이야기, 교과 수업의 예시는 중도지적·자폐성장애 영역을 참조하고, 부가된 장애로 인해 손담 표현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시각중복장애 영역과 지체중복장애 영역을 참조하도록 한다.

4) 학생의 손담 표현의 시작

청각중복장애학생의 의사소통 촉진을 위한 손담은 학생들의 표현보다는 의사소통 상대자인 어머니, 보호자, 교사의 수용으로 시작되고 유지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나 학생이 일상에서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손담을 경험한다면 학생의 손담 이해는 생각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학생의 손담 표현은 개별 학생의 소근육 협응과 맥락 및 표현의 의미에 대한 인지적 이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에게 의미 있게 경험되는 맥락을 통해 의사소통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음은 학생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한 맥락의 이해가 손담 표현의 출발선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례이다.



은숙이의 보청기가 사라진 날, 학교는 발칵 뒤집어졌다. 담임교사는 은숙이의 귀를 가리키며 “은숙아, 보청기 어디 있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지만 은숙이는 해맑게 웃기만 했다.

‘이를 어찌지. 보청기를 어디에서 찾지...’

교사는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에 은숙이와 함께 아이가 다녔음직한 학교 안의 길이란 길은 다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은숙이가 잃어버린 곳을 기억해 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없다’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했다.

- 양팔을 벌리고 어깨를 들어 올리면서 “은숙아, 보청기 없어?”
- 양 손을 쥐었다가 펴서 내보이며 “은숙아, 보청기 없어?”
- 검지와 셋째 손가락을 펴서 턱을 두 번 치며 “은숙아, 보청기 없어?”



[그림 Ⅶ-17] 다양한 ‘없다’의 몸짓상징 표현들

가는 곳곳마다 은숙이에게 이런저런 몸짓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함께 보청기를 찾아다녔다. 다행히 교사와 은숙이는 복도에 떨어져 있는 보청기를 찾을 수 있었고, 그날 이후 은숙이는 손담으로 “없어”를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4. 새로운 시작 앞에서

청각중복장애학생에게 의사소통이란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표현함으로써 자기 선택과 자기 옹호의 기초를 마련하고, 도전적 행동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교수되어야 할 목표이다. 그러나 수어와 구어로 수용과 표현의 습득이 어려운 청각중복장애학생들에게는 표현이 단순하고 의미 이해가 쉬운 손담이 의사소통의 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손담 활용을 위한 가이드북 연수 자료집에서 제시한 손담 활용 및 사례는 청각중복장애학생에게 손담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손담의 수용 및 반응 정도는 학생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손담의 적용 방식은 개별 학생에 따라 세심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에 학생이 사용하던 의사소통 방식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의 표현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손담의 표현을 추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고은 (2017). 청각장애아교육. 서울: 학지사.
- 국립특수교육원 (2017).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몸짓언어 개발 기초연구 보고서.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국립특수교육원 (2018). 중도·중복장애학생 의사소통을 위한 몸짓상징 「손담」 교수·학습자료집.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국립특수교육원 (2019). 손담 활용 가이드북.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김정연, 박은혜 (2006). 손짓기호체계와 그림의사소통판을 이용한 의사소통 중재가 중도뇌성마비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지, 47(1), 265-289.
- 박경옥 (2011). 지체 및 뇌성마비학생의 비상징적 의사소통 행동평가척도 타당화 및 유형화,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1), 145-171.
- 송만호, 한경근 (2015). 반다이크 사정을 활용한 중도 뇌성마비 아동의 의사소통 특성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50(3), 71-95.
- 정인호 (2009). 청각중복장애 아동 교육지원방안, 한국청각장애교육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국립특수교육원학술지, 237-257.
- 황정현, 주혜선, 박은혜 (2019). 시각중복장애학생의 몸짓상징 의사소통 활용 실태 및 지원요구에 대한 질적 연구: 부모와 특수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2(1). 25~47.
- Adam, H. (2000). Mit gebärden und bildsymbolen kommunizieren: Voraussetzungen und möglichkeiten der kommunikation von menschen mit geistiger behinderung (3th ed.), Würzburg: Bentheim.
- Dimensions Behaviour Support team (2015). Professionals Communication systems for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autism. Bromley: NHS Bromley CCG.
- Rogow, S. (2005). A Developmental Model Of Disabilit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0(2): 132-135.
- Scheetz (2014). 21세기 농교육-주제와 경향(윤미선, 백유순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저 2012).
- Trief, E. (2007). The use of tangible cues for children with multiple disabilities and visual impairment.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101, 613-619.

참고 사이트



- 몸짓상징 「손담」 (2019).
국립특수교육원 온맘 출처 www.nise.go.kr/onmam/front/actlang/selectActLangMainPage.do
- 웹기반 AAC 보드 메이커 그림상징 (2015).
웹기반 AAC 보드 메이커 출처 <http://220.69.171.25:8080/WebAAC/>
- Baby Sign Language (2018). Children with Special Needs Using Sign Language.
Retrieved from <http://www.babies-and-sign-language.com>.
- Deutsches Down-Syndrom InfoCenter: Ein Baby mit Down-Syndrom. 7 Auflage. Lauf (2000).
Retrieved from www.ds-inforcenter.de
- Singing Hands UK (2013). Singing Hands: Three little monkeys - with Makaton Sign Language.
Retrieved from www.youtube.com/watch?v=mZBZ8J1R_yU&feature=youtu.be
- The Signalong Group (2018). Resources: The Basic Vocabulary set, also available as a dictionary, is a collection of over 1,600 signs of everyday nouns, verbs and concepts. Retrieved from <http://www.signalong.org.uk>

중도중복장애학생 의사소통

손담 활용 연수 자료집

연구책임자 박은혜(이화여자대학교)

공동연구원 구정아(대전대학교)
김정연(조선대학교)
이현주(이화여자대학교)
주혜선(대구대학교)
황정현(서울원효초등학교)

연구협력관 오영석(국립특수교육원)

집필진 박은혜(이화여자대학교)
구정아(대전대학교)
김정연(조선대학교)
이현주(이화여자대학교)
주혜선(대구대학교)
황정현(서울원효초등학교)

협력연구원 김호정(서울농학교)
민미영(밀알학교)
박선미(서울애화학교)
박예슬(서울정민학교)
배수진(밀알학교)
송미령(청주맹학교)
이은주(서울맹학교)
이재신(서울정민학교)
정혜경(인천혜광학교)
조신재(한국구화학교)
주수영(서울정민학교)
지경미(밀알학교)

연구보조원 조아라(이화여자대학교)
최진희(이화여자대학교)
김서현(이화여자대학교)

발행일 2019년 10월 31일

발행인 김은숙

발행처 국립특수교육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40
041.537.1500

비매품